2010.12.08 No.88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기획특집 '블랙골드' 지고 '블루골드' 뜬다 p21~37
세계가 러브콜! 한국 농업기술 p38~43
포토 뉴스 서해 한미연합훈련 현장 p8~11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p14~15
"탄탄한 국방태세 갖추겠다"

우리 가까이 111
국가안보는 생활입니다

행복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11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국가를 지키는 111

간첩, 좌익사범,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전화 111

‘블루골드’ 물은 대한민국의 미래

2005년 이래 우리나라는 ‘물 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가 21세기 글로벌 이슈로 부상했고, 도시화 및 산업화로 물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하·폐수로 말미암은 수질오염도 물 산업 시장의 한 분야로 변모했다. 확실히 물 산업은 지구촌의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는 물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07년 3천6백20억 달러에서 2025년 8천6백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물 시장은 현재 구미(歐美), 특히 프랑스의 다국적기업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그들은 자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광역·통합화 운영을 기반으로 성장해 지금은 세계 물 산업 분야에서 설계, 건설, 운영은 물론 파이낸싱까지 도맡는 거대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다국적 물 기업 베올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백25억 유로에 이르고, 세계 2위의 수에즈와 독일의 지멘스는 물론 최근 미국의 제너럴일레트릭(GE)까지 물 산업에 뛰어든 것을 보면 지구촌 ‘물장사’는 이제 세계 대기업들의 유망한 미래 사업임이 확실해졌다.

우리나라도 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정부는 2020년에는 세계 수준의 물 기업 8개를 갖는 물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국내 물 기업의 빠른 세계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상하수도 등 대규모 물 시장의 운영관리 역량을 가지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현재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시군별 지방 상하수도부터 광역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우선 공기업에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하수도사업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민간기업이 빠른 기간 내에 토털 솔루션 능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향후 세계로 진출한 우리 물 기업이 이 나라 ‘미래세대의 먹을거리’를 마련하려면 정부, 기업, 지자체, 전문가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 G

김응호
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

Weekly
2010.12.08
No.88(통권 189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야전 지휘관 출신인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 연합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2.0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블랙골드' 지고 '블루골드' 뜬다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21세기에는 '블루골드'로 불릴 만큼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식수와 산업 생산 보조원에 지나지 않던 물의 가치를 국가의 품격과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자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물 산업 육성정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앞선 수자원 관련 기술과 풍부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물 산업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후대에 물려줘야 할 희망찬 미래의 서막입니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7호(12월 1일자) 기획특집 '北,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 군, 정신무장 강화해 강력 대응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소식을 듣고 조마조마했습니다. 평화로운 날 갑자기 쏟아진 북한군의 공격에 해병대원, 민간인이 안타깝게 희생돼 제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_장명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무모하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잔인성과 난폭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은 더욱 정신무장을 강화해 도발하는 적은 반드시 격퇴한다는 자세를 지녀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해 안보를 유지해야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_우윤숙

"온 국민이 힘 모아 안보 수호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결연하게 대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겠습니다."_강윤화

87호 '포토 뉴스 / 金 수확 신기록… 종합 2위 달성'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우리나라가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을 통해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줘서 너무도 기쁩니다. 완벽히 재기에 성공해 멋지게 3관왕의 영예를 안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를 비롯해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투지를 불태워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_김효진

87호 '나눔경영 기업 탐방 / 소외계층에 희망 선물 한아름'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기부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아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추구에만 급급하고 이기적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기업들이 따뜻한 사회를 일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 흐뭇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이웃들이 더욱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나눔경영'에 참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온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_땡글이

알립니다

공감코리아 정책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정부 정책과 국민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정책 기자단을 모집한다. 평소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 많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2월 14일까지
지원 방법 | 홈페이지의 지원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 친서민 정책, 녹색성장 정책, 정책 체험 사례 3가지 중 하나를 택일해 기사로 작성해 첨부
결과 발표 | 12월 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예정
활동 내용 및 혜택 | 2011년 1년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콘텐츠 발굴. 생활 속 정책체험과 개선할 사항, 제안 등을 기사로 작성. 게재 기사 원고료 지급. 요청 시 활동경력 증명서 발급.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과 국가 행사 및 정책 현장 탐방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 02-3704-9588 접수 홈페이지
korea.kr/newsWeb/html/event/20101117/gija.html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알려주세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가 8백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과 국내 관광객을 위해 누리꾼(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여행지'에 대한 의견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1위에 선정된 여행지는 현장 취재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2월 26일까지
참여 방법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이벤트 폴더 '네티즌 선정 대한민국 구석구석 베스트 그곳'을 클릭해 2백자 이내로 의견 작성
당첨자 발표 | 12월 27일 발표 예정
당첨자 선물 | 다운재킷(2명),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권(5명), 아이리버 충전식 손난로(15명) 등

한국관광공사 ☎ 02-728-9779 korean.visitkorea.or.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1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개인이나 단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유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일본 야쿠르트에서 3년간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임창용 선수는 계약이 끝나는 올 시즌 일본 각 구단의 집중 OOO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옛날 방문(榜文)을 붙여 널리 보이던 일.
4. 텔레비전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이 시청되고 있는 정도. "그 드라마의 OOO이 30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6. 대한민국 국기.
8. 최근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된 군함. 수십 대의 비행기를 탑재하고 뜨고 내리게 할 수 있죠. 조지워싱턴함.

세 로

1. 돌진, 쇄도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rush.
2. 전화로 부르면 달려오는 택시.
3.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는 태세.
5. 다람쥐인데 우리 고유의 다람쥐와는 다르죠. '청서(靑鼠)'라고도 하죠. 입 아래와 가슴, 배 부위의 털이 순백색인 설치목과 동물.
7. 배가 항해 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

〈Weekly 공감〉 86호(11월 2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녹색성장 3 재차 4 금광 6 자율화 8 천재일우
세로 1 녹차 2 장학금 3 재소자 5 광저우 7 화천

〈Weekly 공감〉 8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영신·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김창규·서울 강북구 삼각산동
김현혜·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염미숙·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주영·광주 동구 소태동

공공의 행복을 생각하는 '좋은 나라'

금난새 유라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감독 겸 지휘자

동아DB

친구 중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단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연주장 밖에서 서성이는 꼬마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공연을 보고 싶은데 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아이를 연주자가 등장하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배경 설명을 한 후, 공연을 보게 하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음악회가 끝난 후 아이에게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소개해주었다고 합니다. 10년 후 이 아이는 변호사로 성장했고 오케스트라를 위해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표가 없는 아이의 손을 잡고 관람만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주고 당당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말입니다. 그런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과 실천이 차곡차곡 쌓여야 일궈낼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이 내 노력에 의해서 좋은 곳이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작은 회사가 나에 의해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3년 전 대전의 계룡대에서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연주하기 위해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릉도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울릉도에 사는 아이들은 오케스트라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요. 울릉도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하기에 단원들의 뱃멀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참모총장은 "공군이 지원하겠다. 우리가 헬리콥터를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단원들은 30인용 헬리콥터에 악기까지 싣고 멀미 없이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지에 문화를 보내는 것을 국가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기꺼이 헬리콥터를 내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공군참모총장이 보여줬듯, 나보다 공공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하모니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면 이루기 힘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상대에게 또 다른 행복감을 줄 수 있을 때 그 바람은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명현 강원 춘천시 퇴계동

1.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사다리 세운다'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심심찮게 발표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해주는 대학생 봉사단체가 있다니 무척 흐뭇하고 반가웠습니다. 이들 대학생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희망 전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2. 군사분계선이 멀지 않은 지역에 살다 보니 이번 같은 북한의 기습 도발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더군요. 하지만 〈Weekly 공감〉 특집 기사들을 읽어 보니 한시름 놓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고 민생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니 기대해봅니다.

3. 겨울철에 구경할 만한 지역축제를 소개해주세요. .

임안성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2위에 오르고 금메달 수확 신기록을 달성하기까지 감동의 순간을 사진으로 모은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벅찼는데 사진을 보니 그때의 감정이 새록새록 차오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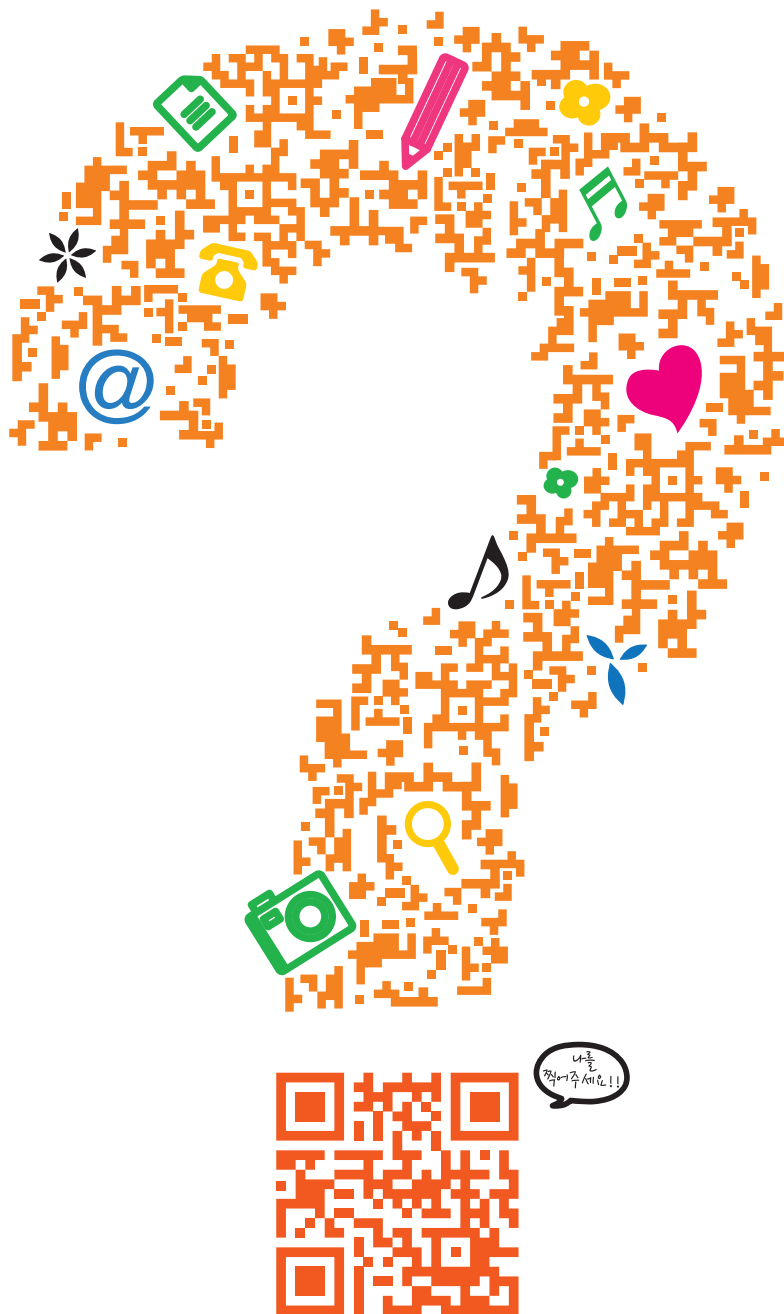
2.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활 터전이 망가진 연평도 주민들도 힘내셨으면 합니다.

3. 아이들과 겨울방학에 다녀볼 만한 체험여행 코스를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8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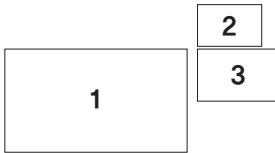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블루골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나를 찍어주세요!!

어디로 간거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거죠??

지금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오면 청사이전에 대한 정보와 역사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가 진행중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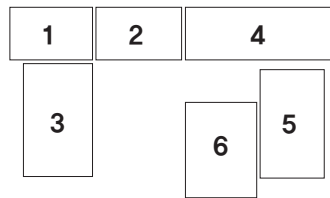
서해를 지켜라!

한미연합해상훈련, 대공방어·수상전 수행능력 중점 점검

1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위용. 돛대까지의 높이가 20층 빌딩과 맞먹는다.
2 조지워싱턴호 함재기가 이륙하고 있다.
3 한국과 미국의 함정들에 둘러싸인 조지워싱턴호(맨 아래)가 푸른 물결을 가르며 항진하고 있다.

최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지금까지 서해에서 치러진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대공방어와 수상전 수행능력을 중점 점검했다.

한미 양국군이 공중과 해상에 고성능 무기체계를 대거 투입해 나흘간 입체작전을 펼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의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J-STARS)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조인트스타스는 고도 9~12킬로미터 상공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 병력·장비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다. 순항속도 마하 0.8에 항속거리 9천2백70킬로미터인 이 정찰기는 11시간 체공하며 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잡아내는 동시에 유사시 목표물 수색과 공격을 유도하는 기능도 갖췄다.

해상에서 위용을 과시한 조지워싱턴호는 1992년 취역한 9만7천 톤급 항공모함. 함

1 한미연합훈련 이틀째인 11월 29일 상륙훈련을 위해 태안 만리포에서 이동 중인 우리 해병대원들.
2 조지워싱턴호 내 전투지휘소에서 승조원들이 한반도 작전상황을 살피고 있다.
3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11월 28일 오전 연평도 해군 전진기지를 향해 고속단정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위쪽의 배는 해경 경비정.

의 길이 3백60미터, 너비는 92미터에 이르며 원자로 2기를 갖춰 외부 연료공급 없이도 20년간 운항이 가능하다. 구축함, 순양함 등과 함께 항모전단을 구성해 반경 1천 킬로미터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축구장 3배 크기(1만8천2백11제곱미터)인 조지워싱턴호 갑판에 배치된 최첨단 F-22전투기(랩터)와 전폭기 슈퍼호닛(FA-18E/F),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투기(EA-6B) 등 80여 대의 항공기는 조지워싱턴호의 위력을 더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 해군 최초의 7천6백 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주목을 받았다.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SPY-1D)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Aegis) 전투체계를 탑재해 동시에 1천여 개의 표적 탐지와 추적이 가능하다. 이 밖에 4천5백 톤급 한국형 구축함(KDX-II)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도 강도 높은 훈련을 함께 소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의 방어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상호작전 운용능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4 열 감지와 야간 투시기능을 갖춰 야간작전이 가능한 미 공군의 슈퍼호닛(FA-18E/F)이 조지워싱턴호 함상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하고 있다.
5 조지워싱턴호 함상에서 미군 조종사들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6 조지워싱턴호의 비행갑판에 즐비한 각종 첨단 함재기들. 둥근 안테나가 특징인 호크아이 2000(사진 왼쪽)과 앞이 둥근 전자전투기(EA-6B)의 모습(사진 오른쪽)도 보인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맞서는 용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

2011년도 국방예산 32조127억원 책정… "국방개혁 강력 추진"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서북 도서지역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7천3백여 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2011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책임통감'을 말머리에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 대응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도발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며 "1천4백여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 포격하고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북 도발 반드시 응분의 대가 치르도록 강군 만들겠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아온 것은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

동아DB

동아DB

경기 연천군에서 기동훈련 중인 K-9 자주포. K-9 자주포 확충과 F-15K(오른쪽 위) 2차 사업, KF-16 전투기(오른쪽 아래) 성능개량 등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2011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며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 다음 날인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기적 같은 성과를 지켜나가려면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11년도 국방예산안이 11월 30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7천3백32억원이 증가한 32조1백27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31조2천7백95억원에서 7천3백32억원을 순증시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보다 2.3퍼센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해 5도를 포함한 서북 도서 긴급 전력 보강과 관련해 국방부 예산에서 8백3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천1백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천5억원이 증액됐다.

"경제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 안보 없이 경제발전 없다"

여기에는 ▲K-9 자주포(최대 사거리 40킬로미터 · 8백66억원) ▲K-55A1 자주포(최대 사거리 36킬로미터 · 1백15억원) ▲지상표적 정밀타격 유도무기 착수금(19억8천만원) ▲소형 중거리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1백10억원) ▲대포병 탐지레이더(3백71억원) ▲음향표적 탐지장비(89억원) ▲무인항공기(UAV · 90억원) ▲무인 전술비행선(AERO STAT · 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예산에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천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백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백3억원 등이 전력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 반영됐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조난자 위치 파악용 무선인식 라이프 재킷 구입 비용으로도 26억원이 책정됐다. G

글 · 박경아 기자

“다시는 도발 못하게 응징할 것”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야전 지휘관 출신인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임명됐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의 기강과 전투의지를 높이고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적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1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군(强軍) 의지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북이 다시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추어나가겠습니다.”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은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적은 또다시 우리 군의 허점을 파고들며 또 다른 양상의 도발을 획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28기)했다. 1972년 육군소위로 임관해 32사단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군경력을 시작한 김 장관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등 주요 군 보직을 거쳐 제33대 합참의장(2006~2008년)을 역임했다.

좌우명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인 김 장관은 주로 야전 주요 지휘관과 작전·전략·정책·전력 증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실제 전장인 이라크 현지에 우리 군 자이툰부대를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까지 전개해 ‘치밀하고 빈틈없는 작전통’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야전 경험을 가진 김 장관은 향후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막고 이번 연평도 포격처럼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치밀하

합참의장 시절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를 방문한 피터 페이스 전 미 합참의장과 함께
국방부 연병장에서 의장 행사를 하고 있다.

고 신속하며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하루빨리 군을 일으켜 세워 전투 의지가 충만하며 군기가 확립된 군대다운 군대를 재건하겠다"며 "눈앞에 있는 적의 불법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지도 못한 채 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만 치중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작전 현장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하에 작전을 과감하고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줄 것"이라며 "국방운영체제 전반에 남아 있는 행정주의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다운 군대 재건을 위해 현재의 가용한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힌 김 장관은 "전장에서의 승패와 직결되는 '무형전력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 의지 충만·군기 확립된 군대다운 군대 재건하겠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체계 개선으로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강군 육성의 기반이자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우수 간부 양성을 위해 '정예간부 능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전투 의지가 충만하고 기강이 확립된 장병을 육성하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교육해나가는 동시에 실전훈련을 통해 모든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묵묵하게 행동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방위역량 격상을 통한 선진 군사역량 갖추기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한 군 구조와 전력(戰力) 건설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방위산업을 성장동력화해 우리 군 스스로의 군사력 건설능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거둘 것 ▲'전략동맹 2015'의 틀 속에서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을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속적인 동맹 발전을 추진할 것 등을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전규칙이란 우발충돌 시 하나의 가이드 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교전규칙을)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전력 증강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공격 양상을 면밀히 검토해 도발 유형별로 어떻게 작전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유형에 대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 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쓰는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적개념 부활' 검토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 보완 중이며 북한 위협과 관련된 표기 문제는 북한군 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대응사격에 철모 타는 줄 몰랐다"

'불타는 철모' 연평도 포병 7중대 임준영 상병

해병대

사진공동취재단

11월 23일 북한군의 기습 포격에 불굴의 대응사격으로 맞선 연평도 포병 7중대 임준영 상병. 대응포격 당시 불에 탄 그의 철모와 턱 끈이 까맣게 그을렸다(오른쪽).

북한군이 연평도를 기습 포격한 11월 23일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철모가 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목숨 걸고 싸운 한 병사의 활약이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연평도 포병 7중대 소속 임준영(21) 상병이다.

임 상병은 23일 오후 2시 34분쯤 평소처럼 교육 훈련 중이던 부대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포격으로 화염에 휩싸이자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응사격에 나섰다. 막사 주변이 온통 불구덩이로 변하고 곳곳에서 포탄이 터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K-9 자주포를 포상에 위치시켜 제대로 조준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포탄 파편과 화염을 뚫고 K-9 자주포로 달려가 포상(대피시설)에서 포를 옮겨 위치를 잡고 적의 진지를 향해 대포를 발사했다. 폭발로 인한 화마(火魔)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북한군 포격으로 발생한 화염이 임 상병을 휘감았고 불은 순식간에 철모 외피로 옮겨붙었다. 급기야 불길이 철모의 턱 끈을 타고 내려왔다. 턱 끈과 전투복이 불길에 까맣게 그을렸지만 임 상병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대응사격에만 몰두했다. 그가 이를 알아챈 건 1시간여의 대응사격이 끝난 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입술 위쪽 부분(인중)에 화상을 입었다.

연평도 도발 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임 상병은 "적에게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부대원이 다친다는 생각을 하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 철모와 턱 끈이 타버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긴박한 상황에도 우리 해병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격 임무를 수행했다"며 "전사한 동료 2명의 몫까지 더해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두 손을 불끈 쥐었다.

"전사한 동료 몫까지 복구작업에 힘 보태겠다"

임 상병의 군인정신은 11월 25일 불에 탄 철모를 쓴 채 연평부대 피해 복구작업을 하던 그를 발견한 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알려졌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폭격과 화염의 공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해병대 정신을 발휘한 임 상병의 철모를 해병대 감투정신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병대 박물관에 영구 전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대한민국 해병대의 용맹함을 보여준 임 상병의 이야기를 접한 국민들은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를 이용해 "해병대 만세", "살아 있는 군인정신, 정말 자랑스럽네요" 등 뜨거운 격려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제부터 시작이다

G20 합의사항 충실히 이행·경제 체질 강화 위해 노력해야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서울 G20 정상회의가 11월 12일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 성과는 사실상 꼬박 1년여 동안 각종 의제들과 씨름해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실무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회의의 숨은 주역인 이들에게서 종합성과를 비롯해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무역, 에너지·기후변화,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등 각 의제 및 세부 분야별 성과와 과제를 10차례에 걸쳐 들어본다.

최희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

우리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모든 의제들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역량과 G20의 문제해결 능력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특히 경상수지 불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합의 시점을 정하는 문제는 마지막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공식회의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1월 11일 밤 10시에 속개된 셰르파(교섭대표)·재무차관 합동 선언문 작성회의는 밤을 넘겨 새벽 3시가 돼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그 사이 수차례에 걸친 당사국 간 협의에도 합의가 안 돼 관련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별도로 2층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던 나머지 국가들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합의 내용은 셰르파·재무차관 간 합의이므로 이튿날 아침 ‘정상들에게 보고 후 승인 조건부’라는 제한이 있어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로 ‘규칙 제정자’로 발돋움

다음 날 아침 속개된 정상회의에서는 정상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들이 선언문 수정을 재요구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정상회의장 내에서 다시 양자 회의와 당사국 간 회의가 열렸고, 이 때문에 공식회의는 30분 정도 순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들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나서야 최종 선언문이 나오게 됐다. 정말 1분 1초가 아찔하고 가슴 조마조마한 순간이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 무대에 데뷔할 수 있었던 큰 기회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진국이 마련한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규칙 수용자’에서 주도적으로 세계경제의 규칙을 만드는 ‘규칙 제정자’로 발돋움했다. 특히 의장국으로서 합의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간 가교 역할 기반 마련

또 선진국과 신흥국의 처지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국가라는 중간자적 위치와 개발 및 위기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양측의 신뢰를 축적하며 합의 도출에도 기여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 간 가교로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고유의 역할을 담당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쌓아올린 평판을 앞으로 잘 이어나가 국제무대의 ‘규칙 제정자’의 일원으로 격상된 지위를 유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와 국제 논의 주도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의제 등 우리나라가 주도했던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1년짜리 의제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내적으로는 내수 확대 등 G20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G

5대 정책 분야 '서울 액션플랜' 성공적 발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시한 마련… G20 상호평가 진일보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이른바 '프레임워크(Framework)'는 개별국가들이 독자적으로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것보다 G20 국가들이 협력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정책공조 체계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후 마침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며 빛을 보게 됐다.

김진명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거시경제과장

국제사회 중재자로서의 경험이 일천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크나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떨쳐내고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개발·무역 등 5대 정책 분야에 걸쳐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향과 회원국별 구체적인 정책 공약들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인 '서울 액션플랜'을 성공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G20의 정책공조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고, 세계 경제협력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G20 정상회의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액션플랜'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세계경제가 지속성장해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개별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재정과 금융 부문에서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로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분야에서도 그동안 추상적으로 제시된 노동·상품시장, 공공 부문, 조세, 녹색성장 등 각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각국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실천적인 액션플랜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녹색성장 분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강조해왔던 혁신 지향적 정책들이 각국의 정책 공약에 반영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아울러 각국의 대외개발정책을 후진국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계획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 간에 좀 더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G20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로 환율 논쟁 불식 기대

서울 액션플랜에서 무엇보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분야는 '환율'과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 대한 정책공조 방향이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세계 주요 경제지들은 연일 환율과 글로벌 불균형 이슈를 주요 기사로 타전했고,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표출해왔다. 특히 환율 문제는 '환율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등 각 회원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워나갔다. 그러기를 수십 차례, 마침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사전 회의 성격인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 문제는 곧

글로벌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조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글자 한 자 한 자에도 의미를 담아 합의문 초안 작성에 신중을 기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경주에서 합의한 환율정책 공조 원칙을 정상 차원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여기에 추가로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에 합의하는 더욱 진전된 결과를 낳았다.

이번 합의는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정상들이 직접 약속한 사항이므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율 논쟁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 만큼 국제 금융시장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환율 문제는 글로벌 문제' 인식, 공조 합의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양자 간의 환율 조정'에서 '다자간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 공조'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완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를 불균형 완화의 해법으로 주도적으로 제안했으며, 이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중국, 독일 등을 적극 설득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향후 작업 방향과 일정에 대한 정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G20 프레임워크의 상호평가 과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열릴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과정에 더해서 이번 서울 액션플랜에 담긴 각국별 공약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과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슈 메이커로서, 신흥국과 선진국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훌륭한 중재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고, 우리나라의 사고의 틀이 확대되는 값진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G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11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들의 합의를 담은 최종 결과물인 서울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비만!

e-건강다이어리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

비만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비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암 등을 발생시켜
당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지금 e-건강다이어리(http://diary.hp.go.kr)와 함께 시작하세요.

'블랙골드' 지고 '블루골드' 뜬다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21세기에는 '블루골드'로 불릴 만큼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식수와 산업 생산 보조원에
지나지 않던 물의 가치를 국가의 품격과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자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물 산업 육성정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앞선 수자원 관련 기술과 풍부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물 산업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후대에 물려줘야 할 희망찬 미래의 서막입니다.

‘블루골드’…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2030년 가상으로 본 ㈜물나라 김대한 대표 특강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에 의하면 2025년에는 물값이 원유값만큼 비싸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2030년 세계적인 먹는 샘물 수출업체로 발돋움한 주식회사 물나라 김대한 대표의 특강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물 산업 육성정책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보자.

옛날 한국에 ‘봉이 김선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외국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이 봉이라는 사람 말인데요,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국의 근세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시대에 물을 팔아먹었다니까요.

하지만 누구의 소유도 아닌 강물을 팔 수 있었을 리가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방에 널린 게 물이던 그 시대에 벌써 물의 상품성을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 이름을 지을 때 ‘봉이’를 넣고 싶었는데 아내도 친구들도 다들 말리더라고요. 당신 사기꾼 되고 싶으냐고. 결국 저희 딸 제안으로 ‘물나라’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봉이라는 이름이 아쉽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먹는 물 수출액이 1년에 5천만 달러쯤 됩니다. 매출액의 50퍼센트를 수출로 거두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국내 물 산업 규모 전체로 보면 절대 큰돈이 아닙니다. 먹는 물 시장만 해도 한 해 1억 달러를 훌쩍 넘어요. 한때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데다, 에비앙 같은 해외 대형 기업이 들어와 우

리나라 물이 국내에서도 1위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진 게 2020년 정돈데 딱 그때 저희 회사가 시장에 들어갔어요. 물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 그만 물 판매량 1위에 국내 매출 40퍼센트 이상을 점유해버렸지 뭡니까. 저희 회사의 물 산지는 강원도와 제주도입니다. 이 동네가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여기 물 공장을 세웠더니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상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제 자랑이 너무 심했네요. 물이 맛있는 비결 좀 알려달라고요? 아이고, 그걸 가르쳐드리면 어떡합니까. 기업 비밀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살짝 귀띔해드리자면 주변 환경을 청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한 물이 최고죠.

깨끗한 물. 그게 없어서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수가 세계적으로 거의 40억명에 달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마실 물이 부족해 죽어간다는 소리죠.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찌감치 아프리카로 진출한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일단 마셔야 살 거 아닙니까. 20년 전부터 나라에서 물 산업 육성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관리를 잘해온 덕이 컸죠. 일단은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게 우선이니까요.

물맛 비결… 주변 환경부터 청정하게 관리

어디 보자, 한국 물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한 게 벌써 40~50여 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아직 코흘리개 어린이였던 시절입니다. TV CF로도 곧잘 나왔었죠. 수로를 뚫고 물을 퍼올리는 사막의 모습, 환히 웃는 아이들. 그 물줄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 이름이 화면에 흘렀습니다.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201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써 세계 수십 개국에서 1백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완료한 상태였으니까요. 7백억원 이상을 들여 필리핀 등 3개 나라에 용수로와 상수도를 내는 대형 공사가 끝난 지도 벌써 15년이 훌쩍 흘렀네요.

당시 정부에서 앞을 잘 내다봤다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물만큼 인류의 삶과 밀접한 자원도 없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오래 버팁니다만 물을 못 마시면 바로 죽어요. 게다가 물은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달에서 희귀금속을 캐고, 태양 빛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물은 지구 아니면 구할 수가 없거든요. 괜히 '블루골드(Blue Gold)'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식수가 원유보다 비싸니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물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은 한정된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물 맛있고 풍부하다고 펑펑 퍼올려 쓰다가는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현재 물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현장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겠죠. 네, 9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봉이가 들으면 너무 일찍 태어났다며 땅을 치고 울 일이에요.

물, 지구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한정되고 소중한 자원

어이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어제 현장 방문에서 한강을 보신 분들이 다들 강줄기를 잘 다스려놨다고 입을 모으시더군요. 그래요. 일단은 치수, 있는 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장 변화를 읽는 눈과 전문적으로 물을 다룰 수 있는 손도 필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은 한정되고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물 맛있고 풍부하다고 펑펑 퍼올려 쓰다가는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운이 좋아서 물 하나로 국내 1백대 기업에 들지 않나,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뽑히질 않나, 이렇게 세계 여러 전문가들 앞에서 어쭙잖은 이야기를 늘어놓을 기회까지 얻었습니다만, 아직 저도 제가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한반도만 지구 수맥 한가운데 들어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물 부족에 시달리는데 여기만 이리 풍족할 리가 없다."

예전에 수출 건으로 독일 바이어 분을 만나 뵈었을 때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어이쿠, 이런 여기 앉아 계시는군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네, 맞습니다.

콩 한 알을 먹느냐 심느냐의 차이라고 했었죠. 먹어버리면 딱 한 개분의 영양분만 남지만 심으면 수 백, 수천 개의 콩이 또 주렁주렁 열리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양은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지만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생수 한 컵이 거대한 강줄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들의 물 나무를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감히 여쭈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글 · 김은영(동아사이언스 기자)

미래 사회 흥망성쇠 될 水 있는 '물'

물 산업 육성,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과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세기가 '블랙골드(Black Gold ·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Blue Gold ·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홍수뿐 아니라 가뭄과 물 부족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 사회의 흥망성쇠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물 산업 육성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인 이유다.

물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은 20세기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유는 21세기 들어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접하며 그 힘이 쇠퇴할 것이고,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1세기에 물 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물 산업은 각종 용수(식수, 공업용수)의 생산과 공급, 폐수처리와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상수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생활 ·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수 담수화 사업과 폐수 재활용 사업, 먹는 샘물산업, 이와 연관된 서비스업 등도 포함된다.

인구 증가, 수질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등으로 물 산업의 성장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다. 물 전문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6.5퍼센트씩 성장해 2007년 3천6백20억 달러에서 2025년 8천6백50억 달러(1천38조원)로 증대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5년에 전 세계 물 산업의 시장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 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떠오

연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1백73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연간 40만 톤 규모의 삼다수 신규 생산 설비.

베올리아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한 물 기업 베올리아의 메리쉬르우아즈 정수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최신식 나노 막 여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34만 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다.

GES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변에 있는 물 기업 GES의 해수담수화 설비. 이스라엘은 해수담수화를 통해 2013년 생활용수의 30퍼센트를 바닷물로 만든 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 산업은 플랜트, 화학, 소재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지닌다. 또한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지역공공서비스 분야와 접목해 종합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질 관리 전문업체인 베올리아가 좋은 예다. 베올리아는 수도 공급회사로 출발해 물 처리, 운송, 에너지 공급,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을 아우르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두산중공업, 웅진,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기업들도 물 산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지난 10월 방한한 압둘라 알 후세인 사우디아라비아 수전력부 장관은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해수담수화 부문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에 전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 1천조원 예상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물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의 물 산업 관련 기술은 선진국의 70퍼센트 수준"이라며 "특히 스마트 상수도 지능형 상수관망, 정수처리 지능형 플랜트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 분야는 선진국의 55~6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건설, 플랜트 시공 분야에서도 경험은 많지만 상하수도 운영, 자금 확보능력 등 토털 솔루션 서비스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물 산업의 내수시장 규모는 1백1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1퍼센트에 불과하고, 해외 물 사업 실적도 2008년 기준 15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0.3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세계 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사업 비중이 높다. 글로벌 로펌인 핀센트 메이슨스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물 기업 중 7곳이 유럽 회사로 업계 1, 2위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해외사업 비중이 80퍼센트를 넘는다. 이 밖에 스페인, 영국, 독일, 브라질, 중국 등의 10개 회사가 세계시장의 29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물 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은 토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물 관련 컨설팅부터 건설, 에너지 공급, 금융 투자, 사후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각국 정부도 물 시장을 선점하려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기술 개발·상용화 지원

프랑스는 1870년대부터 자국 상하수도 시설을 통합·광역화하고 물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쌓은 다채로운 경험을 발판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물 산업 프로젝트에 반드시 자국 기업을 참여시킨다. 중국은 자국 물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 자본 참여를 50퍼센트 이내로 제한한다.

우리 정부도 최근 물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물 산업 육성전략은 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물 전문기업이 공공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이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폭제 구실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중소기업들도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의 물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100년·200년 내다보는 수자원 전략 수립"

2020년까지 세계적 물 기업 8곳 육성… 3만7천 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세계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물 산업 육성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물 시장을 주도할 원천기술 개발 등 4개 핵심전략으로 구성된 물 산업 육성전략은 2020년까지 세계적인 물 기업 8개를 육성하고 3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이DB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학생들이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된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와 정수한 물, 양재천 물을 비교하고 있다.

"물 산업이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물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최근 빈번해진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바로 나와 이웃의 문제이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1백 년, 2백 년을 바라보는 수자원 종합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2025년 8천6백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물 시장은 현재 설계, 건설, 운영, 파이낸싱까지 아우른 토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오염된 물을 걸러 깨끗하게 만드는 첨단소재의 막 여과장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등 물 산업 핵심기술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상하수도 운영 경험 부족으로 토털 솔루션 서비스 역량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 상수도 통합 등 토털 솔루션 능력 보유한 기업 육성

이에 정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21세기 '블루골드(Blue Gold)'인 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물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

했다. 2020년까지 세계적인 물 기업 8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3만7천 개를 만들어 세계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물 산업 육성전략은 세계 물 시장을 이끌어갈 원천기술 개발, 토털 솔루션 역량을 갖춘 물 전문기업 육성, 먹는 샘물 등 연관산업 육성,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 4개 핵심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세계 상하수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IT 기반의 지능형 물 생산·공급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수(淨水), 연수(軟水) 등 고도 수처리에 필요한 원천기술인 첨단 막공정 및 운영관리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에코스마트상수도사업단과 고도수처리사업단을 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물 산업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에코 이노베이션(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조5천5백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 환경연구단지 주변에 물 산업 중심의 대규모 녹색환경산업 복합단지를 마련해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을 연계하는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개발된 물 분야 우수 기술의 실증화, 상업화, 해외진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먹는 샘물 산업·물 재이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

토털 솔루션 능력을 보유한 물 전문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 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공공 부문 사업자에게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수도사업에 대한 운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하수처리장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위탁은 하천 유역단위의 통합운영관리체제로 바뀐다. 유역단위로 통합된 대규모 하수도사업을 전문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형식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사업을 추진해 토털 솔루션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먹는 샘물 산업과 물 재이용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먼저 먹는 샘물의 고급화와 다원화를 위해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지하수 등 인체에 유익한 다양한 샘물자원을 발굴해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미네랄이 풍부하고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제주도의 지하수 자원을 활용해 먹는 샘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먹는 물 산업을 집적화한 산업단지와 물, 바이오, 건강을 융합한 테마형 워터 클러스터를 제주도에 조

동아DB

인천 중구청 직원들이 관할 도서인 소무의도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 시설은 바닷물을 역삼투압 방식으로 처리해 하루 40톤의 식수를 생산한다.

성할 방침이다.

해외로 수출하는 먹는 샘물에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대한민국 단일 브랜드를 개발하고 집중 홍보해 국제신인도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물 재이용 산업 육성을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재정투자 확충과 물 재이용 의무화 대상 건물을 늘려 물 재이용 내수시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 기자재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수도 기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 실시, 국가 간 상호인증 등을 통해 기자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물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세계 물 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물 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2년 국제물협회(IWA) 총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 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원천기술 개발에 6천8백71억원 등 총 3조4천6백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을 대상으로 총 7백80억원 규모의 해외 물 랜드마크 사업도 추진한다. 단일 사업으로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몽골 울란바토르 뉴타운 용수공급 및 물이용 효율화사업 ▲아제르바이잔 아프셰론반도 재생용수 개발 사업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 등 3건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팀 이상백 위원은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은 해당 지역의 물 관리 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격 제고, 물 산업 수출기반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김지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농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수자원 기술 수출에 앞장 서 왔다.
인도네시아 자틸루후르 관개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댐 하류 지역 모습.

농업 발전의 힘 '수자원 기술' 해외로!

한국농어촌공사, 댐·저수지·간척사업 등 24개국 96개 사업 진행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이 '농업'이라는 뜻이다. 그 근본을 세우기 위해선 '물'이 필요하다. 불가분의 관계인 농업과 물을 이어주는 지점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수자원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국 농촌을 이끌었고 이젠 해외 농업국가에 그 기술들을 전하고 있다.

"아구아(água·포르투갈어로 '물')! 아구아!"

물이 괸 저수지를 바라보며 주민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장장 4년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1년에 비가 5백 밀리리터도 채 내리지 않는 이곳에서 이젠 1년 내내 물을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물로 희망을 찾은 이곳은 아프리카 앙골라 남부에 위치한 숨베(Sumbe). 아프리카 남서부에 자리한 앙골라는 연중 큰 기후차가 없는 열대성 기후지역이다. 고원이 전 국토의 60퍼센트를 덮고 있으며 경작이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3퍼센트에 불과하다.

특히 해안가를 따라 남부지역으로 가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건조한 곳이 많다. 숨베는 수도 루안다에서 3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지역으로 13만명 정도가 거주한다. 주민들의 삶은 몹시 어렵다. 27년간의 내전이 그 원인이다.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쟁은 숨베지역뿐 아니라 앙골라 전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황폐화했다.

내전이 일어나기 전 숨베지역은 면화 재배지로 유명했다. 면화 재배는 당시 주민들의 최고 생계 수단이었다. 하지만 기나긴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면화 생산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파괴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도시는 비대해가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숨베지역의 남은 주민들은 면화 재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좌절했다. 면화 재배에 필수적인 '물'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앙골라 정부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빈곤 퇴치와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을 위해 농업재건사업 실시를 계획했다. 시행 기구는 농촌 발전에 필수적인 수자원 기술이 풍부한 한국농어촌공사로 정했다.

농어촌공사는 200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개월에 걸쳐 숨베지역 면화단지 3천2백 헥타르를 대상으로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1단계를 진행했다. 면화 재배에 도움이 되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양수장 2곳과 저수지 3곳 등 저류용적 5만4천6백70세제곱미터를 마련했다. 송수관로와 급수관로를 만들어 물길도 텄다. 총길이 66.5킬로미터의 도로도 닦았다.

아프리카 대륙 내, 숨베지역 면화단지 인프라 구축

숨베지역의 면화단지 인프라 구축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된 올해 3월 시공업체 담당자들과 앙골라 정부 관계자, 주민들은 양수장과 저수지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주민들은 늘 물이 부족해 거주지에서 4, 5킬로미터 떨어진 더러운 강물을 떠다 썼다. 그러나 이제 저수지를 통해 깨끗한 물을 숨베지역 내 7, 8개 마을 주민 1천명이 쉽게 쓸 수 있게 됐다.

사업의 대부분은 마무리됐지만 내후년 본격적인 면화 재배를 앞두고 농어촌공사는 농민을 대상으로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2단계를 전개하고 있다. 풍부해진 물 덕분에 이모작이 가능해진 만큼 일모작인 면화 재배와 면화 판매 유통을 가르치고, 이모작은 한국형 작물인 수박이나 참외 등의 작물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수자원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참여했던 농어촌공사 안성수 차장은 "앙골라 숨베지역에 면화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1만2천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만으로도 새 희망을 얻은 숨베지역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개발도상국의 농업발전을 위해선 수자원 기술 수출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농업 발전의 디딤돌은 물을 활용하는 수자원 기술이다. 농업국가로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나라는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자원 기술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농어촌공사를 필두로 그동안 댐, 저수지, 방조제 건설, 대규모 간척사업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마련하면서 필수요소인 수자원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농어촌공사는 1967년 베트남에 수자원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 수자원 기술 수출의 물꼬를 텄다. 베트남 아수프 다목적댐 개발사업, 캄보디아 메콩강 델타지역 홍수조절 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타당성 조사 및 설계사업,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등 현재 24개국 96개 사업을 완

지난 7월 11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세네갈 농업용수 자원관리 연수 세미나. 세네갈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 기술 해외 수출 실적

구분	1970~80년대	1980~90년대	1990년대 이후
주요 진출국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재원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KOICA, EDCF
사업 내용	농업개발, 관개수로	물 관리, 영농	간척, 농촌개발

2010년 농어촌공사 해외사업 추진 현황

국가	사업 내용	기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쿠밀라지역 농촌종합개발	2008. 5~2011. 12
인도네시아	자틸루후르 관개관리 개선	2009. 8~2010. 11
	까리안 도수로 타당성 조사	2010. 6~2011. 6
	서부 따룸 대수로 개·보수	2010. 8~2014. 12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퐁참 농촌종합개발사업	2010. 7~2012. 3
케냐	케냐 아웬도지역 식수개발사업	2010. 7~2013. 1
탄자니아	잔지바르 농업관개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010. 8~2010. 11
라오스	라오스 힌협군 관개용 댐 및 수로 건설사업	2010. 7~2013. 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수자원 관리 지원사업	2010. 4~2012. 2
앙골라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2단계	2010. 9~2013. 8
DR콩고	추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2010. 11~2013. 8
계	9개국 11개 사업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현장의 양수장 전경. 앞으로 대규모로 조성되는 면화 재배단지의 용수 공급을 맡게 된다(왼쪽).
지난 3월 존 마하마 가나 부통령과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료하거나 진행했다.

농어촌공사의 수자원 기술 수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농어촌공사가 우위를 점하는 관개시설, 댐, 저수지 등 농업 SOC 분야와 농촌지역 빈곤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개발 분야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80년대 농업개발과 관개수로, 1980~90년대 물 관리와 영농, 1990년대 이후 간척 및 농촌개발 등 향상된 기술을 테마로 해외시장에 적용해왔다.

농업 분야의 우수한 수자원 기술력을 갖춘 농어촌공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농업 개도국들의 협력 대상 1순위가 됐다. 2006년부터 탄자니아 대통령을 시작으로 몽골, 세네갈, 가나 대통령이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했다. 이렇듯 농어촌공사가 농업 개도국들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 까닭은 수자원 기술을 토대로 한 해외사업들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최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산업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탄자니아 루피지 유역 농업개발사업과 필리핀 농공복합산업단지(MIC)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예로, 이런 사업들 역시 관개수로, 양·배수장 설치 등 수자원 기술이 바탕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업개발기술을 수출하는 해외기술용역사업은 앞서 설명했던 수자원 기술 수출사업을 포함하는 명칭이다. 농업의 기본인 물을 제공하고 관리해주는 이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물, 환경, 기아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간척·농촌개발 등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해외시장 적용

이 사업들은 대부분 원조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뿐 아니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유

지난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까리안-세르퐁간 용수공급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조사사업과 관련한 연수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수자원 관련 담당자들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 충남 미호천 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견학했다.

농어촌공사 이창범 단장은 "농업의 필수 요건은 물"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어촌공사의 우수한 수자원 기술들을 해외 농업국가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조(EDCF)로 지원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수자원 관련 농업기술 수출사업은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시공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서부 반뗀 주에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량 2억 톤 규모의 댐을 건설해 하류지역 홍수 조절, 소수력 발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사업 외에도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다. 자틸루후르 관개시설 건설과 서부타룸 대수로 리모델링이다. 인도네시아는 1976년 이후부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40개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해 우리나라 자원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나라다.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국가와는 달리 1983년 이후 주재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물 기술 전파 위해 수자원 관련 초청연수 진행

농어촌공사는 수자원 기술 전파를 위해 2007년부터 수자원 관련 초청연수도 벌이고 있다. 2007년 아세안 지하수 개발 및 관리사업을 비롯해 16건의 연수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수자원 기술이 필요한 개도국을 위주로 현지 담당자를 초청해 진행하거나 현지에서 시공 중인 사업과 병행해 수자원 기술 노하우를 가르치기도 한다.

몽골 농장개발사업, 인도네시아 자틸루후르 관개시설 건설을 담당했던 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주욱종 과장은 "농업국가로 발전해야만 하는 개도국들에게 농업 관련 수자원 기술은 필수"라며 "앞으로 수자원 기술 수출 대상국을 동남아에서 서남아시아, 중남미로 넓히고 관개배수 위주의 기초적인 수자원 기술 수출과 농어촌 종합개발, 환경보전 등의 사업 분야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 이창범 단장

"수자원 기술로 해외 농업사업 일군다"

"농업과 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을 맡고 있는 이창범 단장(사진 아래쪽)은 지난 30년간 농업 현장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그가 생각하는 농업의 필수요건은 단연 '물'이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조차 없다. 그렇기에 한국 농업 발전에 일조한 농어촌공사에서 최고의 기술로 내세우는 것은 물과 관련된 농업기술이다.
이 단장은 "관개기반시설, 댐, 저수지, 방조제 건설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을 만들어낸 농어촌공사의 수자원 기술들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농업개발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해외에 수자원 관련 농업기술을 알리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농업 분야의 발전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수자원 기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와 댐, 농지마다 핏줄처럼 연결된 농업용수로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백 년간 쌓아온 이런 수자원 기술 개발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농업 발전을 이뤘으며 이런 수자원 기술들은 해외 농업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해외추진단의 해외사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농어촌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이후 수자원 개발, 관개지구 개발, 농장 개발,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해외용역사업 위주로 해외사업을 꾸렸다면 이젠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돕는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해외농장에서 관개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농장 운영이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사업에서 수자원 개발은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수자원 기술 수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공사에 30년간 재직하면서 농업의 기본이 되는 수자원 기술 개발 분야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 대규모 농업개발사업 일부는 해외 원조를 통해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가 더 나은 농촌 환경을 구축했고 이젠 반대로 개발도상국에 수자원 기술을 전파하고, 관련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가 발전시킨 수자원 기술을 개도국에 전해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수자원 기술 분야 수출전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농업은 수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농업·농촌의 개발은 수자원 개발과 병행됩니다. 앞으로 식량 부족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농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저수지, 지하수, 관개기반시설 개발 등 수자원 개발 계획을 병행해 대한민국의 농업 관련 수자원 기술 개발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는 K-water 관계자들과 강 인근 주민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K-water

'목이 타는' 곳곳에 물 산업 기술 알린다

한국수자원공사, 축적된 기술·경험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수출

세계의 물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때 그 흐름을 넋 놓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답은 해외 진출과 수출이다.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전통적인 내수 사업에서 벗어나 그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6월 10일 베트남 메콩강 델타유역에 자리한 끼엔장성의 우밍정수장. 그곳에 끼엔장성 국영 TV와 베트남 3개 신문사 취재진이 몰렸다. 그들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하고 시공 감리한 정수장 준공식 취재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최신 정수장 준공이 얼마나 큰 뉴스였던지, 바로 전날 끼엔장성에서 개최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미국, 스웨덴 등 55개국 대표단 관계자들도 준공식 참관을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정수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이곳에는 상수도 시설이 전혀 없었다. 우물이나 빗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인성 전염병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 지하수에도 염분이 다량 섞여 있어 안전한 식수 공급이 절실했다.

적도기니 정부와 상수도 기술 수출 계약 체결

이에 K-water는 2008년 1월 22억 달러 상당의 정수장 및 수로 건설사업을 시작해 타당성 조사와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역주민 2만명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24시간 공급받게 됐다.

또한 이곳엔 세계 최고 수준인 K-water의 수질 분석 및 관

리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9월 40억원 상당의 다락성 부온호 지역 상수도시설 사업에도 원조를 요청했다. 하루 2천 세제곱미터가량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취수장과 정수장 2개소와 60킬로미터의 송·배수 및 급수관로, 사업 관리를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K-water는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렇듯 '목이 타는' 세계 곳곳에서 K-water를 향한 구애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수도시설의 조성, 유지 분야에서의 사업 계약 성과가 두드러진다.

올해 5월엔 아프리카 3대 산유국인 적도기니 정부와 총사업비 6백71만 유로, 한국 돈으로 1백7억원 상당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몽고모시의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수질관리 노하우와 경영 일반 컨설팅, 시설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수력발전소 건설, 운영 관련 사업 수주 성과도 적잖다. 최근엔 2006년 따냈던 인도 나갈랜드주 소재 리킴로 수력발전소의 정상 운영 및 전력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관리 기술 지원사업(5년)을 5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7월엔 아프가니스탄 소수력발전소 준공 사후관리 운영 사업권(3년)을 따냈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분야 등 엔지니어링 기술 전수

지난 10월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수도회사와 상하수도 기술 교류 및 신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 최대의 물 시장으로 꼽힐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다수의 경영계약, 양허계약, BOT(Build-Operate-Transfer) 등의 수익성 사업이 예정돼 있다. 국영 수도회사는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국영 수도회사를 통한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상하수도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실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부 차원의 인프라 건설과 자원 개발 연계 추진전략에 따라 '패키지'형의 사업 계약도 늘고 있다. 올해에는 우즈베키스탄 주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카파라스크 식수개발사업의 기술 자문 용역도 따냈고, 이미 2007년 5월엔 총사업비 2백95억원의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 개발사업(5년)도 단독으로 수주했다. 올해 6월까지 강에 위치한 기존 댐 3개의 제방과 구조물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2012년 2월까지 소수력발전소 2개와 관개수로 보수 등을 통한 인근지역 개발에 나선다.

K-water

K-water는 아프리카 국가로는 최초로 적도기니의 몽고모시 상수도사업을 수주했다.

2010년 K-water 물 산업 수출 현황(진행 사업)

국가	사업 내용	기간
인도	리킴로 수력발전소 운영관리 기술 지원사업	2006. 3~2011. 3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사업	2007. 5~2012. 2
아프가니스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2차 사후관리 기술용역사업	2008. 7~2011. 7
파키스탄	패트린드 수력발전사업	2009. 4~2045. 4
	STAR Hydropower사 기술 자문사업	2009. 10~2014. 9
이라크	아르빌 침사지 설치사업	2009. 11~2011. 5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도수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10. 2~2012. 1
적도기니	몽고모 정수장 유지관리사업 (2차)	2010. 6~2013. 5
베트남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010. 7~2012. 10
우즈베키스탄	카파라스크 식수공급 개선사업	2010. 7~2010. 12
계	9개국 10개 사업	

K-water는 수력발전 건설 분야, 상수도 개발사업과 함께 홍수 방지, 통제 및 사업계획, 운영관리 분야에까지 사업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여기에 자금 확보, 조달(파이낸싱) 능력을 결합한 토털 서비스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물 종합 서비스 재원 조달의 다각화와 산업 간 파트너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K-water 윤병훈 해외사업처장은 "산업의 프로세스와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 물 산업"이라며 "이러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서로 연계해 수주 능력을 높이려면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물 종합 서비스를 수출한 대표적 계약으로는 지난해 9월 수주한 파키스탄 패트린드 수력발전사업을 들 수 있다. 총사업

동아DB

K-water

이라크 아르빌 지역 상하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K-water가 건설한 아르빌 정수장(위).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선 선진 물 관리 기업과의 기술 교류도 필요하다. K-water는 지난 4월 물 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가진 델타레스사와 전략적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아래).

비 3백31만 달러인 이 사업은 2045년 4월까지 무려 35년간 수력발전댐 설계와 시공, 환경영향평가, 댐 운영관리 등 전체 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건설·상수도 개발·운영관리 분야까지 진출영역 넓혀

여기엔 대우건설과 삼부토건 등이 k-water와 공동주주로 참여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도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우건설과 삼부토건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참여하고, 댐 운영 등은 k-water가 전담한다.

이 밖에도 k-water는 중국 장쑤성 사양현 지방상수도 인수사업과 필리핀 카팡간 수력발전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처럼 k-water가 물 종합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도 물 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 발주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 등 해외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water는 앞으로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익성 있는 투자사업 발굴 및 유망한 해외 물 기업 인수합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 4대강살리기 사업 기술 수출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글 · 유재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처 박도수 팀장

해외사업 추진·수출전략 키워드는 '토털 서비스'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해외 진출, 수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미 동남아에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좋아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자원 개발이 절실한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도 우리의 사업 진출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주한 파키스탄 패트린드 수력발전사업은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댐 건설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이른바 '토털 서비스'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k-water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했던 중동지역에 딱 들어맞는 전략입니다. 또한 중동 국가 정부는 수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 투자가 가능합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며 외국과의 무역, 경제 교류가 늘어났지만 전력 쪽으로는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전력 사정이 최악입니다. 사무실이나 공항까지도 수시로 단전이 되곤 합니다. 실제 국가적으로 연간 2만5천 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생산은 2만 메가와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5천 메가와트는 수력발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이나 기술면에서 중국, 일본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도기니를 시발점으로 아프리카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석유로 부를 얻는 국가들이라 투자에도 여력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하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사업 진출은 아프리카 쪽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물 사정이 좋지 않아요. 밀림이 많기 때문에 수질 상황도 최악입니다. 따라서 기술 지원까지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당장 수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접촉해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기술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압니다.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량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등의 효과는 물론 주변 환경까지 개선되는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기술에 대해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몇몇 국가는 실제 직접 찾아와서 보겠다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 산업 선도 위해 차별화된 기술 필요"

남궁은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현재 국내 물 산업 시장 규모는 12조원 정도지만 해외 물 산업 시장 규모는 올해 이미 5백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 산업이 해외에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상수, 하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지하수 등 물과 관련된 주요 분야의 기술들이 물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산업 선도국가가 되려면 물과 관련한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30여 년간 물 전문가로 지내온 남궁은(59)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겸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가 바라보는 물 산업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20세기 산업화에 '블랙골드' 석유가 도움 됐던 것처럼 오늘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블루골드'인 물 관련 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뿐 아니라 물 재이용 및 신규 수자원 개발, 개발도상국의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의 신규 처리시설 수요 급증 등 물 산업 분야들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가 2007년 3천6백20억 달러에서 2025년 8천6백5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한다는 전망은 전도유망한 물 산업 미래와 직결된다.

"막 여과 고도 정수기술 검증 완료되면 해외 시장 효자상품"

국내 민간 기업에서 수처리 관련 설계, 시공, 운영을 맡고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을 역임한 남궁 단장은 물 산업의 성장을 누구보다 일찍 예견해왔다. 이런 그의 물 산업 열정에 날개를 달아준 곳은 2004년 9월 출범한 환경부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다. 남궁 단장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맡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에 적용할 뿐 아니라 해외 물 산업 기술의 해외진출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은 막 여과 기술을 통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하수와 폐수, 고도 처리된 정수의 상수관망 공급, 이 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망 관리를 비롯해 상수관망 진단, 평가, 운영 관리 기술 개발, 수영용수 수준의 하폐수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및 등록 3백건, 신기술 개발 21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조영철 기자

남궁은 단장은 우리나라의 원활한 물 산업 수출을 위해선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다루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며 민관 및 정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남궁 단장은 "실용적인 개발 중심의 비즈니스 연구개발(R&BD)을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며 "특히 사업단의 모토인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From Source To Tap)'를 이루는 핵심기술인 정수용 막 소재 및 중대형 막 분리 고도정수처리기술에 쓰이는 내화학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PVDF 소재의 정밀여과(MF) 분리막 및 모듈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했으며 내년 검증이 완료되면 해외 물 시장 진출의 효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단장은 "지금 세계 물 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기업처럼 설계, 건설, 파이낸싱, 운영관리 등 토털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민관 및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물 산업 분야뿐 아니라 인프라, 하천 정비, 자원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해외 진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계적인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내 현장에 적용돼야 합니다. 실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우리의 막 여과 기술이 세계 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 쇼아이바 3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담수량은 하루 88만 톤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담수는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 공급된다.

세계 물 산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다

혁신기술·근면성 내세운 국내 기업들 물 산업에 앞장

세계 물 산업 규모는 올해 약 5백80조원에서 2025년에는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갈수록 커지는 물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혁신기술과 근면성을 내세워 세계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활동 현황을 알아봤다.

해수담수화 분야 경쟁력으로 물 사업 확대

두산중공업은 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SWCC)과 라스 아주르 해수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수주금액은 17억6천만 달러로 지금까지 발주된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하루 담수 생산량은 1백만 톤으로 이 역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한다. 이는 2005년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쇼아이바 3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8억5천만 달러, 하루 약 88만 톤 생산)의 세계 최대 기록을 뛰어넘는다.

쇼아이바 3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세계적인 물 관련 전문지인 〈GWI〉가 선정하는 '2009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올해의 담수 플랜트'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두산중공업이 지금까지 수주한 담수플랜트 공사는 20여 건으로, 최근 2, 3년간의 수주량만도 5, 6건에 달한다. 액수로는 총 56억 달러, 하루 생산량은 4백30만 톤가량이다.

두산중공업 박윤식 전무는 "최우수상 수상으로 두산중공업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향후 해수담수화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처리 사업에 진출하는 등 물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박 전무의 말처럼 두산중공업의 관심사는 물 산업의 다각화에 있다. 지금은 담수화 플랜트 건설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차츰 물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처리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으로, 미국 최대 수처리 엔지니어링 업체인 카롤로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프로젝트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주)

선진 기술력으로 물·환경 사업 초석 마련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 상하수 사업은 모두 9건, 총 4억5천만 달러 규모다.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이 올린 성과는 3억6천5백75만9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0퍼센트를 웃돈다.

특히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는 '몽고모시 하수시설 공사(4천19만9천 달러)', '몽고모시 상수공급설비 공사(1천453만7천 달러)' 등 굵직한 공사를 맡아 현지에서 '현대=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을 정도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첫 공사였던 몽고모 상수설비 프로젝트는 디자인이 뛰어나 적도기니의 랜드마크로 불린다. 적도기니 대통령이 외국 사절들에게 가장 먼저 안내하는 장소가 됐을 정도다. 이 같은 신뢰는 몽고모 하수시설 공사와 에비베인 및 에비나용 상하수도 프로젝트를 연거푸 수주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물 산업 공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소와 원유처리 플랜트는 물론 도로, 댐, 공항, 항만공사 등의 토목공사와 쓰레기처리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다.

김홍겸 에비베인 상하수도 공사 현장소장은 "적도기니 물 산업 분야 진출은 신시장 개척과 후진국에 대한 선진 기술력 이전으로 물·환경 사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처리 통합 솔루션 구축으로 해외 시장 진출 박차

코오롱그룹은 물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물 산업 관련 소재, 시공, 운영 등 수처리 통합 솔루션을 구축해 세계 물 산업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를 향한 코오롱의 핵심기술은 막 여과 기술. 오염된 물의 정수처리에 핵심기술인 막 여과 장치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2008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금상을 받았고, 같은 해 지식경제부 장관에 의해 국내에서 실용화된 신기술 중 가장 우수한 10대 신기술로 선정됐다.

막 여과 방식은 하수와 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필터인 분리막을 통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코오롱 에코연구소 신용철 소장은 "머리카락 굵기의 1천분의 1 정도의 미세한 구멍으로 걸러 세균류나 원생동물 등 수돗물의 오염물질이 99.9999퍼센트까지 제거된다"고 설명한다.

국내의 영등포정수장(2만5천 세제곱미터/일), 대구 공산정수장(4만 세제곱미터/일), 해외의 뉴질랜드 더니든 정수장(2개소 총 4천8백 세제곱미터/일), 중국 하이닉스 폐수처리장(2만5천 세제곱미터/일), 미국 코카콜라 폐수처리장(1백 세제곱미터/일) 등에 적용됐다. 선진국의 분리막에 비해 단단하고 코팅이 잘 벗겨지지 않으며 운송과 보관도 훨씬 간편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처리 하수시설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

쌍용건설은 물 부족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담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발주된 주베일 담수화 프로젝트를 마쳤다. 이로써 하루 80만 톤의 식수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 양이면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도시의 시민 2백50만명이 사용하는 수돗물 양과 맞먹는다.

사업 초기엔 담수설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촉박한 공기(工期), 중동지역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난공사가 될 것을 예상했지만, 쌍용건설은 단 한 차례의 공기 지연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쳐 발주처는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이를 통해 쌍용건설은 중동지역에 대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담수화 플랜트를 통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쌍용건설이 개발해 신기술로 지정된 고도처리 하수기술인 KSMBR(Kwater Ssangyoung Mem- brane Bio-Reactor)를 활용한 하수처리시설까지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G

글 · 이윤진 기자

쌍용건설

쌍용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플랜트 현장.

코리아 농업기술, 세계 속에 뿌리내린다

개도국에 농업기술 지원·자원 공동개발 통해 국가 위상 높여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에 대해 세계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녹색혁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의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개도국에 대한 농업 지원은 기본적 인권인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일일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확보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를 위한 개발 의제를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뤘다. 단순한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자생력을 길러 빈곤을 해소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40년 전만 해도 쌀밥조차 마음껏 먹지 못했던 우리 국민은 녹색혁명을 통해 배고픔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현재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은 개도국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도 우간다 대통령, 짐바브웨 총리, 탄자니아 총리 등이 농촌진흥청을 직접 찾아와 농업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외국 국가·기관과의 협력협약 1백56건, 외국인 초청훈련 1백16개국 3천2백75명, 농업 전문가 파견 72개국 26개 분야 4백37명 등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대륙별로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센터를 구축했다. 우리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해외자원을 현지 국가와 공동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등 6개국에 KOPIA센터를 설치했고 올해는 캄보디아, 필리핀, DR콩고, 알제리를 더해 10개국으로 확대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역·국가별 맞춤형 사업으로 이뤄져

KOPIA센터 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과 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협력, 이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지에 시범농장을 설치해 농업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며 현지 국가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또 농업 전문가와

일러스트 · 남동윤

농업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 이공, 식품, 현지어 전공 대학생이나 졸업생의 해외 인턴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은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열대작물과 바이오에너지작물, 중앙아시아에서는 사료작물과 과채류, 아프리카에서는 축산과 식량작물, 중남미에서는 유지작물과 노지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농업 자립기반 구축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KOPIA 베트남센터의 경우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바이오에너지작물 육종 및 재배기술과 신선채소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농업연구청과 함께 콩, 녹두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을 개발해 콩과 작물의 유전자원을 늘려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와 과채류 우수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사료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은 시험연구 기반을 다지는 단계지만 나라별로 단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케냐에서는 못줄을 이용한 벼 모내기 기술을 전수해 재래식 모내기보다 수확량을 20퍼센트 늘리는 성과를 거뒀고, 파라과이에서는 파라과이 농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밭작물 파종기 시연회를 열어 1천 대의 구매 요청을 받았다.

KOPIA센터는 내년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2개국과 가나,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2개국, 그리고 칠레 등 남미 1개국에 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고현관 국외농업기술팀장은 "이 같은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도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작물 품종 및 다수확 재배기술 전수, 에너지 · 자원 외교 역량 강화, 선진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글로벌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해외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농업 청년리더 양성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PIA센터, 내년에는 15개국으로 확대

우리나라는 또한 지난해 11월 아시아 12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AFACI ·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의 출범을 주도했고, 올해 7월에는 서울에서 아프리카 1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 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AFACI와 KAFACI는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아 극복, 빈곤 타파, 농업 · 농촌 개발을 선도해나가게 된다.

농촌진흥청 나승렬 기술협력국장은 "국가별 맞춤형 시범사업과 국제적 협의체 활동을 통해 '고기를 잡아주는' 지원방식을 탈피해 '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 아프리카 개도국이 힘을 모아 '함께 고기를 기르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제3세계 지원방식의 혁신적 개선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도국에 대한 효과적인 농업 지원은 우리 농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식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G

글 · 이혜련 기자

베트남 KOPIA센터는 시범사업으로 바이오 에너지작물과 신선채소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열대지역에서 재배한 배추, 오이, 상추 등 신선채소를 수확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확인시켰다.

4개 대륙 개도국에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

선진기술 전하는 '농업대사'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는 현지 국가와의 공동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세계 최초의 맞춤형 농업기술 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4개 대륙 10개국에 설치된 KOPIA센터는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하는 '농업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케냐 시골 마을에서 벼 탈곡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고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에 파견된 우리나라 농업인턴들이 자전거를 활용한 간이 탈곡기를 고안해 탈곡 시범을 보인 것이다. 탈곡 시연회에 참석한 현지 언론들은 수확 노력이 크게 절감됐다고 극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탈곡기가 케냐에서는 첨단 농기계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해외농업기술개발에서는 그 나라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기술 전수가 중요하다. 수확기조차 없는 곳에 미곡처리시설(RPC)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지원한다면 현지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농업기술개발은 대상국의 농업 자립기반 구축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케냐, 파라과이를 4개 대륙별 거점센터로 정하는 한편, 국가별로 시범사업을 통한 농업기술 개발과 맞춤형 기술 보급에 나서고 있다.

파라과이센터, 참깨·채소 전문가 파견해 맞춤형 기술 지원

중남미 거점센터인 파라과이 KOPIA센터에서는 스테비아(설탕보다 3백 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허브), 참깨, 벼 등의 다수확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또 멜론, 상추, 토마토, 고추 등

의 국내 품종과 현지 품종을 비교하는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파라과이 KOPIA센터 양세준 소장은 "오이, 고추, 토마토는 국내 품종이 이 지역 품종보다 우수한 특성이 확인됐다"며 "파라과이에 우수한 채소 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국내 채소 종자의 남미 진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파라과이 KOPIA센터에서는 참깨, 채소 등의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원예마을 시범단지에 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는 등 파라과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브라질 KOPIA센터에서는 주요 버섯에 대한 시험 재배와 재배법 개선, 기능성 버섯 육종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사철느타리 등 한국 품종의 브라질 내 적응성 시험을 하는 한편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 등 8종의 버섯 유전자원을 수집했다.

농촌진흥청 유영복 버섯과장은 "브라질의 버섯 재배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낮고 값싼 노동력과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기술과 자동화기계 수출 가능성이 높다"며 "브라질은 기후가 다양하고 아마존에 유전자원이 풍부해 우리의 육종기술을 결합할 경우 새로운 버섯품종 육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센터, 시범농장 조성해 멜론 접목기술 전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이 인정받고 있다.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KOPIA센터가 개최한 동계 사료작물 수확 시연회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트리티케일 등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생산성도 우즈베키스탄 품종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김기용 연구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내 육성 품종으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해외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저렴하게 생산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뿐 아니라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해 종자 수출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KOPIA센터는 우리의 멜론 접목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농업생산과학센터 산하 채소멜론감자연구소에서 열린 멜론 재배기술 세미나와 접목 시연회에는 농업연구원뿐 아니라 인근 농민들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 KOPIA센터는 시범농장을 조성해 우즈베키스탄 수박, 멜론 품종과 우리나라 품종 간의 비교 재배시험을 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과학자와 견학 농민들을 통해 우리 기술이 우즈베키스탄 농가로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소과 박동금 연구관은 "우즈베키스탄은 수박과 멜론, 토마토 등 과채류 유전자원의 보고(寶庫)로 5만여 점의 토종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농업기술 교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유전자원과 우리의 농업기술이 접목되면 양 국가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남아에서는 드라마나 아이돌그룹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에서도 한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KOPIA센터에서는 열대지역에서 재배에 성공한 배추, 오이, 고추 등 신선채소를 수확해 베트남 농업 지도자들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실감하고 현지 농가에도 쉽게 보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느구엔 반 보 베트남농업과학원장은 "베트남 KOPIA센터는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베트남 농업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선채소 재배기술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신선채소 생산을 확대해 베트남 국민의 비타민원 공급과 영양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얀마 KOPIA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열대콩 품종의 육성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재래종 콩 3점의 유전자원을 확보해 다수확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고, 올해는 강낭콩 2백 점의 현지 증식 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두부, 두유, 콩나물 등 콩 가공기술 보급에도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 강상조 차장은 "앞으로 KOPIA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세계의 리더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농촌진흥청

우즈베키스탄 KOPIA센터는 우리의 멜론 접목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채소멜론감자연구소에서 열린 멜론 재배기술 세미나와 접목 시연회에는 농업연구원뿐 아니라 농민들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쌀밥도 못 먹던 우리나라 지금은 농업외교 큰 자부심"

이규성 해외농업기술개발 캄보디아센터 소장

이규성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 캄보디아센터 소장(가운데)은 지난 11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쌀 분야의 국제적 연구 메카인 국제미작연구소가 수여하는 세나디라 국제학술상을 받았다.

이규성(51)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캄보디아센터 소장은 11월 10일 '세나디라 국제학술상'을 수상했다. 쌀 분야의 세계적 연구 메카인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벼 연구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자를 2년에 한 명씩 선정해 수여하는 이 상을 한국인이 받은 것은 이 소장이 처음이다.

국제적인 벼 육종가로서 25년간 농촌진흥청과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벼 품종 육성 및 유전학 연구에 헌신해온 그는 "우리나라 벼 육종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국제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번 학술상이 개인적인 영광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동안 40여 종의 벼 품종을 개발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간척지의 소금기에 적응하는 벼 품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로 국제적으로 벼 내염성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4년 생합성영양(Biofortification) 쌀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해 철분과 아연을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밥을 먹어서 흡수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철분 함량이 많은 쌀인 '고아미 4호'를 개발하는 데 산파역을 했다.

농촌진흥청 첨단농업과장, 녹색미래전략팀장 등을 역임한 이 소장은 개발도상국에 우리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난 8월 15일 KOPIA 캄보디아센터 소장으로 자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의 미션은 우리 농업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캄보디아 현지에 적응하는 작물 품종 육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을 시작했고, 차츰 다른 작물 육성 등 캄보디아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의 경우 연구시설, 인적 자원 등 모든 것이 열악하고,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원조를 많이 받다 보니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진실로 캄보디아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곳의 문화나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 어렵지만 현재 잘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낄 때도 많을 텐데요.

우리가 가진 기술이 외국에서 선진기술로 인정받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릴 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불과 40여 년 전에 쌀밥도 못 먹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나 온대 자포니카 국제컨소시엄(TRRC) 등을 통해 농업기술을 전수해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대한민국 농업기술을 해외에 전파하는 과학자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은 국가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농업기술을 해외에 전파하는 농업외교관으로서 우리가 배고팠던 경험을 해결한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데 작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글로벌 農者' 천하지대본

농촌진흥청, 해외인턴 프로그램으로 농업시장 개척

경상대 농학과 3학년 정종성 씨는 올 2월부터 6개월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뜻깊은 경험을 했다. 농학과 학생임에도 3년 동안 이론 수업만 받고 풀 한 포기 가꿔보지 못했던 그가 현지에서 직접 수많은 작물을 키워보게 된 것이다.

정 씨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인턴에 합격해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토마토, 멜론, 수박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해보면서 다양한 작물 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실례로 토마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순 자르기를 하면서 생장점을 자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토마토 부위별 관리 방법 등을 확실하게 몸으로 익혔다.

정 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농촌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농촌진흥청 해외인턴은 농업을 공부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이론과 현장 감각을 충분히 익힌 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영남대 원예학과 4학년 한재현 씨 역시 해외인턴으로 선발돼 미얀마 KOPIA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았다. 그곳에서 한국 콩의 현지 적응 여부를 시험해보고, 한국의 작물 품종과 미얀마 작물의 교배 가능성도 타진해봤다. 또한 미얀마 콩 재배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노린재에 대한 방제대책에 관한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토마토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인턴들.

이처럼 농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갈수록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 선진 농업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 등의 지원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재 양성은 중요한 과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해외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연구인턴'과 'KOPIA 인턴.' 연구인턴은 영어 및 전문성 평가로 선발한 국내 농과계, 이공계 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대만, 페루, 케냐, 미국, 중국, 네덜란드, 브라질 등의 국제기구 및 농업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체계 강화·KOPIA 파견인력 확대

인턴 참가자는 현지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한다. 지난해 20명의 학생이 파견됐으며, 올해도 24명이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KOPIA 인턴은 농과계, 이공계 대학생 및 졸업생뿐 아니라 식품, 현지어 전공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합격한 인턴은 6개월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등 각국 KOPIA센터에 파견돼 농업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한식 보급 등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활동에도 앞장선다. 지난해 40명에 이어 올해에는 96명이 인턴으로 파견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인턴 연수 인원을 30명으로 늘리며, KOPIA 파견 인력도 15개국 1백80명으로 확대한다.

공동연구 사업 강화를 위한 연구보조원도 국내 이공계 지원 프로그램 연수자 중 30명을 선발해 15개국으로 파견한다. 기간은 2년이며, 국내 종자의 현지 특성 검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G

글 · 유재영 기자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팀 ☎ 031-299-1080 www.rda.go.kr

쌀쌀한 겨울, 살뜰한 관심으로 푸근하게

사회적 약자·병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 전달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병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상실감을 만회해주고 자립을 돕는 일에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AMOREPACIFIC

여성암 환우 마음의 상처 치유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것은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외모 변화로 상실감을 겪는 여성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 같은 노하우를 전수해 투병 중 겪는 외견상 혹은 심리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3천명이 넘는 환우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유방암에 대한 예방의식 향상 등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과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 역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 전액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유방암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사용되는데, 지금까지 15만명이 참가해 참가비 14억원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됐다.

저소득층 여성 가장과 아동의 자활을 돕기 위한 '희망 가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게 목적이다.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된 '아름다운세상 기금'으로 만들어진 '희망 가게'는 2004년 7월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2개점이 문을 열었다.

피부 관리·헤어 연출법 전수해 외견상·심리적 고통 덜어줘

희망가게 창업주인 모자가정 가구주 어머니들은 가게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을 도모하고 남은 수익은 다시 아름다운세상 기금으로 기부해 다른 모자가정 가구의 자립을 돕는다.

동아DB

아모레퍼시픽은 암 치료로 인한 외모 변화로 상실감을 겪는 여성 암환우에게 메이크업, 피부관리법을 전수해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7천6백만원의 상금과 함께 시상을 해온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연 2회 전 임직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맞춤봉사활동을 하는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나눔' 행사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2015년 세계 10대 화장품 회사'라는 비전을 내걸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위해 협력사들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 전략도 실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5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지원 중이다. 주요 협력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과 인재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글 · 최보윤(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LG하우시스

지난해 LG하우시스 직원들이 경기 고양시 홀트아동복지타운의 내부 벽을 꾸미고 있다.

LG하우시스

'행복한 공간 만들기' 위해 낡은 시설 개·보수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보람도 느끼고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나 낡을 대로 낡은 이 시설은 올해 6월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LG하우시스 직원들이 땀 흘려 복지관의 강의실과 휴게실 등을 전면 개·보수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만든 것. 공간디자인이 시공하고 LG하우시스의 임직원이 마감공사까지 맡아 진행했다. 디자이너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미술교육도 함께 지도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 4곳의 공간 인테리어 새 단장

국내 1위 건축 장식재 기업답게 특화된 건축물 디자인 역량을 활용한 LG하우시스의 사회공헌활동은 독특하다. '행복한 공간 만들기'로 이름 붙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관 건물 인테리어를 바꿔주는 활동이다. LG하우시스는 지난 8월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 등 4곳의 공간을 새로 단장했고 올해 연말까지 5, 6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선정해 개·보수를 마칠 계획이다.

2008년부터는 '독도 지킴이' 활동도 펼치고 있다. 독도에 LG하우시스의 친환경 강화 목재 '우젠(WOOZEN)'으로 안전펜스와 통행로를 설치하고, 독도경비대 시설과 등대 등을 개·보수하고 있는 것.

올해 7월에는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독도사랑 청년 지킴이'를 선발해 독도와 울릉도의 공간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지방 사업장에서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자발적인 사회봉사단을 결성해 여러 지역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1사(社) 1촌(村)'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LG하우시스의 중국 생산법인 LG신형건재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애심협회(愛心協會)'라는 단체를 통해 지역 내 학교 지원, 양로원 봉사, 장애인학교 후원활동 등을 펼쳐 중국 사회에 한국 기업의 따뜻한 기업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글 · 박성호(조선경제i 기자)

농심

사랑·교육·환경 나눔으로 '받은 사랑' 나눠요

농심의 사회공헌활동 키워드는 '나눔'이다.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다양한 봉사·기부활동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의미에서다. 이런 취지에 맞춰 농심은 문화공헌, 임직원 봉사, 수익금 기탁활동을 통한 '사랑 나눔'과 장학·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나눔' 그리고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환경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사랑 나눔 콘서트'는 농심의 대표적인 나눔 봉사활동이다.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 나눔 콘서트'를 2000년부터 11년째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입장료 대신 기부한 신라면 4만2천5백84개를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에게 전달했다.

'농심 사회공헌단' 통해 무의탁 아동·노인시설 등 자원봉사

농심은 또 '농심 사회공헌단'을 구성하고 본사 및 각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무의탁 아동과 노인시설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농심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해피펀드'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서울 동작복지재단에 신라면 2천 박스를 전달했다.

농심은 교육 나눔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제주삼다수·농심장학재단에 매년 5억원씩 총 50억원의 장학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재단은 제주지역 영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학술문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됐다. 2006년부터는 매년 제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에서 학업 우수 또는 저소득가정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3 그린(Green) 농심'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그린 프로덕트(Green Product)' ▲친환경 공급망 및 청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린 프로세스(Green Process)' ▲환경 친화적 신사업을 추진하는 '그린 비즈니스(Green Business)'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심 관계자는 "고객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는 기업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홍원상(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농심 사회공헌단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센터에서 '농심과 함께하는 따뜻한 점심' 행사를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

몽골의 프리미엄 맥주 1위 브랜드인 '카스'를 수출하는 OB맥주의 직원들이 해외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몽골에 조성 중인 '희망의 숲'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오비맥주(주)
Oriental Brewery Company

'몽골 희망의 숲' 조성 등 해외 사회공헌 앞장

오비맥주는 주류업계에서 손꼽히는 '나눔형(型) 기업'이다. 국내에서 건전 음주문화 봉사단 운영,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해외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섰다. 몽골 프리미엄 맥주 1위 브랜드인 '카스'를 보유한 오비맥주는 몽골에서 '몽골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카스' 판매 금액의 1퍼센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모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타워 아이막 에르덴 솜에 15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 개선 프로젝트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6백50명이 나무심기 사업에 참여했고 내년부터는 인원을 1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사내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건전 음주문화 봉사단'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 단체 등과 연계한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 오비맥주 생산 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경기 이천시에서는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연간 1만5천 톤 수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판매액의 일정액 적립해 몽골에 나무심기 사업 참여

매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문화체험 행사도 여럿 연다. 시각장애인 1명과 오비맥주 직원 1명이 한 팀을 이뤄 2인용 자전거인 텐덤사이클을 타는 '어울림 축제'도 그중 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새벽 본사 직원들이 서울 서초동 우면산을 등산하면 회사 측에서 1인당 1만원씩을 기부해 불우이웃 성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만원의 행복' 행사도 2008년부터 거르지 않고 해오고 있다.

이호림 사장은 "오비맥주는 올여름 성수기 시장에서 주력 품목인 카스의 판매 호조를 토대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백만 상자 국내 판매를 달성했다"며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나눔·상생의 경영철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덕한(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농촌에 문화가 찾아온다 젊음이 찾아온다

문화와 젊음으로 생기 되찾은 경북 영덕 인량리·전남 강진 도룡리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도 젊음의 활기가 넘친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농어촌 '문화 이모작'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외된 농촌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마을 문화 리모델링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 11월 20일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1리 용암종택 앞마당은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1년에 한 번 담그는 김장김치를 위해 하나둘씩 모여든 것. 고춧가루, 파, 마늘 등으로 소를 만들어 소금에 절인 배추를 버무리다 보니 여기저기서 몰래 먹은 김치 맛에 반한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왔다. "와, 죽이네." "역시 종갓집 김치여~."

이날은 그동안의 김장김치 담그는 날과는 다르게 마을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문화 이모작' 프로젝트 중 하나인 '나라골, 손맛 나는 날' 행사로 외지인이 다수 찾아왔기 때문이다.

인량1리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70여 채의 한옥으로 이뤄진 고택마을. 하지만 젊은이들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 2백30여 명의 주민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이 홀몸노인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곳에 젊음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문화기획자인 상상공장 직원들과 대학생, 문화예술인 등 1백50여 명으로 구성된 농촌문화기획단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농촌마을을 되살리는 문화 이모작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한여름의 문화 산타와 한옥 예술제, 8월 농촌문화와 함께하는 대학생 MT 페스티벌, 9월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종갓집 추석 등 다양한 테마에 따른 '농촌사랑'을 키워드로 인량리 마을에 문화 체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한옥 마을'인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마을은 11월 20일 종가(宗家)의 손맛으로 만드는 김장 행사를 벌였다. 마을 사람들과 외부 관광객 2백여 명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창현

가족 단위 참가자는 물론 영덕군 주변 결혼이민여성들까지 참여한 이날 '나라골, 손맛 나는 날' 행사는 단순한 김장김치 만들기를 넘어 김장독 묻기, 직접 만든 김치와 수육 먹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으로 진행됐다.

체험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량리 마을의 홀몸노인들을 찾아가 김치를 선물하며 이 마을에서만 품을 수 있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상상공장 직원 이정아 씨는 "매달 한 차례씩 마련되는 행사들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 주민이 문화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남은 12월 송구영신 행사와 인량리 인근 괴시리, 원구리, 송천리 등 한옥 2백38채의 고택 살리기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2 "얼씨구나, 지화자! 코리아, 굿. 굿."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말, 60여 명이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꽹과리와 장구 소리에 흥이 겨운 파란 눈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 마을은 〈하멜 표류기〉의 저자인 헨드릭 하멜이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류한 뒤 1656년부터 7년간 살았던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그리고 꼭 3백47년 만에 하멜과 같은 외국인들이 다시 이 마을을 찾았다. 하멜과의 만남을 간직해온 도룡리 마을을 예술마을로 탈바꿈시키는 '뉴하멜 표류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는 문화 이모작 사업 대상지로 뽑힌 도량리 마을의 대표적인 활동 결과가 됐다.

하멜의 나라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포르투갈 등 7개국에서 날아온 해외 작가 15명은 설치미술, 아트 영상, 벽화 등의 작품을 7월 한 달간 만들었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 도룡리 마을 주민들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염색 체험, 국악 배우기, 사랑방 손님 등의 프로그램으로 도룡리 마을 주민과 외국인 간 문화 교류는 도룡리 마을의 문화 인프라가 됐다.

'뉴하멜 표류기' 프로젝트를 마쳤던 8월 21일, 마을에서는 잔치가 열렸다. 이른바 '애프터 하멜 파티'가 열린 것. 외국인 유학생들로 이뤄진 전통공연단과 마을 주민, 작가 등 4백여 명이 모여 도룡리 마을을 위한 잊지 못할 문화 축제를 벌였다.

도룡리 마을 김성우 이장은 "마을 스토리텔링, 만물수리센터, 국제 레지던시 등 문화 이모작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이 새롭게 변신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전남 강진군 도룡리 마을에서 열린 '애프터 하멜 파티'. 7월 한 달간 15명의 외국 작가들이 '뉴하멜 표류기'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농촌마을이 '문화와의 만남'으로 달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간 절망뿐인 농촌에서 이제는 찾아가서 보고 싶은 문화예술의 장(場),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고향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문화 중심지로 거듭난 농촌의 무한변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한 문화 이모작 사업에서 비롯됐다.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으로 '문화·여가(73.1퍼센트)'가 꼽혔다. 기초생활권 단위인 농촌지역에선 생활서비스 환경의 취약이 큰 문제인 것.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문화'를 상정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농외소득 증가 등을 위해 문화 이모작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첫 단추를 여미는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기초생활권 지역경쟁력 순위 최하위인 경북 영덕군과 전남 강진군을 선정했다.

홀몸노인의 새로운 손자손녀 캠페인·문화기회 교육 제공

그중 한옥마을로 문화적 발전 가치가 있었던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마을과 하멜이 다녀갔던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마을이 최종 결정됐다. 두 마을은 문화기획을 맡은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주축으로 지난 5월부터 문화 이모작 사업을 꾸려갔다.

문화 이모작 사업의 기본은 문화를 통한 마을 발전에 있다. 소외된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관광여가 사업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대로 문화 이모작 사업은 시범사업임에도 마을 주민을 비롯해 주변 마을까지 그 파급력이 전달되고 있다.

그저 고택이 많은 평범한 마을에 그쳤던 인량리 마을은 PM과 대학생들로 이뤄진 농촌문화기획단 '물꼬'의 도움으로 홀몸노인들의 새로운 손자손녀가 일가일손(一家一孫) 캠페인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의 예술인 되기를 추진해 문화기획 교육 등을 제공받았다.

도룡리 마을은 마을 홍보를 위해 스토리북, 마을 홍보물, 주민 참여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특히 '3백47년 만의 재회'를 테마로 '뉴하멜 표류기' 프로젝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해 무너진 돌담을 다시 잇고 농촌에 숨겨진 예술성을 찾는 미술 작품들이 남아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강은아 사무관은 "문화 이모작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농촌의 숨겨진 면모를 알려 기쁘다"며 "내년에도 농촌을 살리는 문화 기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학교'

다기능 학생증·학교안전 전도사 등 어린이 안전 시스템 눈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아 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이 같은 시기에 부모들을 안심시켜줄 어린이 안전 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최근 어린이 안전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초등학교들의 노하우를 살펴봤다.

서울 창도초등학교는 기존의 등·하교 SMS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학교 출입 통제와 연계한 다기능 학생증을 고안해 아이들의 안전에 힘쓰고 있다.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여러 학교가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높지 않았죠.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학교 출입통제 시스템과 연계해 다기능 학생증을 만들었더니 학생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 사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창도초등학교의 '다기능 학생증' 활용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안전관리헌장 선포 6주년을 맞아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대책 및 보행지도 도우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은 실천이자 생활이므로 각 분야에서 '안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창도초교 안전문화 선진화 우수 사례로 선정

기존의 등·하교 SMS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학교 출입통제와 연계한 서울 창도초교의 다기능 학생증은 박정래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현재 학교마다 안전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교문 등 주요 지점에 설치한 중계기가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창도초교의 경우 전교생 1천3백여 명 가운데 이 서비스의 이용률은 20퍼센트 미만이었다.

이에 박 교사는 "평소 외부인 출입이 잦은 데다 조기 등교하는 학생과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많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 아이들의 등·하교와 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학생증을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로는 이용률이 80퍼센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선단말기보다 수신율이 떨어지는 점을

다기능 학생증을 학교 현관에서 인식하면 메인 컴퓨터에 출입 사실이 기록된다. 또한 학교 곳곳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오른쪽).

보완하기 위해 학생증을 교문에서 인식기에 태그하는 방식을 활용했죠."

현재 학생들은 다기능 학생증 하나로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학교 출입통제 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3시 이후에는 학생증과 출입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한다. 학생들이 정문을 통과한 뒤 학교 현관으로 들어갈 때 학생증을 대고 출입하면 자동으로 메인 컴퓨터에 출입 사실이 기록돼 사후 조회도 가능하다.

창도초교가 구축한 다기능 학생증은 현재 다른 학교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붐을 일으켜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 전국 여러 학교에서 다기능 학생증 도입에 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전문화 선진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북 죽림초교는 체험활동 중심의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천해 효과를 거둔 경우다. 학교 안팎으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자료가 부족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시킬 안전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죽림초교가 실시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무지(53퍼센트)와 부주의(23퍼센트)가 가장 높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안전생활 습관을 만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안전한 횡단보도 체험', '우리집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실시했다. '모범 119 소년단' 조직 등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험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가르친 안전교육 내용은 학생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지로 제작해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에 이용했다.

이러한 죽림초교의 안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줬다. 2007년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죽림초교 안전교육 통해 사고 발생 비율 40% 이상 줄어

역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성산초등학교는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받은 바 있다. 성산초교는 2005년 마포구가 서울시의 국제안전도시사업 시범구로 선정됐을 때부터 국제안전학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학교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고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학교를 안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교장, 치안센터장, 주민센터장,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전학교위원회를 구성하고 마포구와 함께 안전교육 시행,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성산초교 안전교육 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학교안전 전도사 S-Guys' 운영이다. 마포구 보건소와 함께 운영하는 S-Guys는 4~6학년 학생 희망자 60명을 선발해 매월 1회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안전을 점검하며 손상예방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성산초교는 1, 2학년에게는 교통사고 안전교육, 3, 4학년에게 자전거 안전교육, 5, 6학년에게는 장애예방 교육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어이구야~ 이런 귀중한 상 받아도 되나"

코미디언 임희춘,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 수상

원로 코미디언 임희춘 씨가 지난 11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웃음 전도사인 코미디언들이 앞으로도 쭉 사랑받길 바란다는 그를 만났다.

임희춘 씨는 "웃음을 전하는 코미디언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돼야 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어이구야~'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1970~80년대 안방극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코미디언 임희춘(본명 임진상·77) 씨가 지난 11월 국립극장 무대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11월 22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다.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예술인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마련한 상이다. 임 씨는 이날 배우 신구, 성우 고은정 씨와 함께 최고의 영예인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정부에서 코미디언에게 이런 귀중한 상을 줘도 되느냐"며 너스레를 떨던 그였지만 감격을 가누지 못하고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잠시 감정을 추스르던 그는 두 눈에 눈물이 핀 채 "코미디언이 마이크를 잡고 울면 안 될 것 같다. 제 유행어라도 한마디 들려드리겠다"며 왕년의 유행어 '어이구야~'를 외친 뒤 관중의 환호 속에서 무대를 내려갔다. 이날 객석에서 휠체어를 탄 채 지켜보던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그의 수상을 유난히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코미디언이 마이크 잡고 울면 안 되는데…" 감격의 눈물

임 씨의 말처럼 '정부가 코미디언에게 훈장을 주는 시대'가 됐다. 코미디언 임희춘의 이번 수상이 더욱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다.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시상식 후 열흘이 지난 12월 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자택에서 그를 만났다.

임 씨에게 "당시의 눈물이 화제가 됐다"고 말을 건네자 그는 "코미디언은 우스운 사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람들이 코미디를 한다고 하면 일단 우습게 본다"며 "직업상 웃겼을 뿐인데 어딜 가든 코미디언이라는 이유로 조금씩 깔보는 시선이 느껴졌

지난 11월 22일 국립극장에선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코미디언 중 처음으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임희춘(왼쪽에서 두 번째) 씨.

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1952년 극단 '동협'으로 데뷔해 <웃으면 복이 와요> <유머극장> <명랑극장> 등 1970~80년대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주름잡던 대표 코미디언이었다. 연극배우로 시작한 그였기에 코미디언에 대한 멸시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한다.

"당시 연극인들은 코미디언을 낮춰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농담이나 하는 천박한 직업으로 여겼던 거지. 연극 한다고만 해도 '딴따라패', '굿패'라며 깎아내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6·25전쟁 때 피난을 가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서울로 돌아온 그는 구두닦이, 냉차장수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러다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는 무조건 찾아갔다. 첫 공연을 하던 날, 긴장한 그는 그만 엔지(NG)를 내고 말았다.

"내 차례인데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등 떠밀려서 무대로 나왔는데 멀대 같은 놈이 다리는 휘청거리고, 표정은 기묘하고, 대사도 버벅대니 이건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지. 덕분에 객석은 웃음바다가 됐고, 비극은 희극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어이구야~' 한마디가 지금의 '나' 있게 한 원동력"

당대 최고 스타였던 김희갑 씨가 당시 연극을 보러 왔다가 그런 임 씨를 보고는 '저놈 한번 키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김희갑 씨와 구봉서 씨를 차례로 만나며 코미디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그는 자신을 '행운아'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코미디언으로 전업한 뒤엔 고향 어른들도 '창피하다'며 '보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임 씨를 비롯해 서영춘, 이기동, 배삼룡 등 이른바 '바보 연기의 일인자'들이 출연정지를 당해 졸지에 백수로 지내던 때도 있었다.

마치 자서전을 쓰듯 찬찬히 과거를 회상하던 그는 이내 특유의 익살맞은 표정으로 '어이구야~'를 연발했다. 그는 "무대에서 항상 '졸병', '하인' 역할만 했지만 양반을 향해 재치 있게 뱉어낸 이 한마디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시상식 때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되짚었다. "코미디언에게 훈장을 줬다는 건 코미디언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내가 처음 포문을 연 셈이라 더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임 씨는 15년 전 3층짜리 자택의 1층을 사무실로 개조해 '노인복지후원회'를 열었다. 은퇴 후 자신을 위해 웃어주던 세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 일에 뛰어들었다.

매년 전국의 복지회관을 찾아다니며 '전국 웃음경연대회'를 열어 까마득한 후배들과 한 무대에 선다. 가수 현미·태진아, 탤런트 전원주를 비롯해 방일수 등 동료 코미디언과 그 부인들의 모임인 '코주부'도 그가 앞장서 주도했다. 대중예술인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코미디언은 고된 직업입니다. 가수는 한 곡만 히트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지만 코미디언은 매주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잖아요. 행사를 나가도 꼬박 두 세 시간은 진행하고, 중간 중간 웃겨야 하고, 쉴 수도 없고, 제일 불쌍하죠. 가족들도 힘들긴 마찬가지고요."

임 씨는 후배 코미디언들을 위한 당부를 잊지 않는다. 그는 "코미디 전용극장 같은 게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며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웬만해선 문을 열지 않는다. 특히 코미디언들이 설 무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훈장도 받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성과도 있었다. 지난 9월 사단법인 코미디협회가 정부로부터 정식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것. 그동안 변변한 협회조차 갖지 못했던 코미디언들은 이번 일로 대중예술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믿는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건강이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평생 살면서 코미디언들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는 이유랍니다."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사회봉사단체에 재능기부로 사랑 전해요"

사회봉사기관에 기업이미지 만들어 주는 김형석 경희대 교수

"사회봉사기관에 몇천만원씩 기부할 여건은 안 되지만 디자인 기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비영리 학술기관, 사회봉사기관 등 70여 곳에 기업이미지(CI)를 무상으로 기부해온 김형석(46) 경희대 시각정보학과 교수. 그는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휴먼대상 시상식'에서 재능기부를 펼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디자인은 돈이라고 배웠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예전부터 교수를 맡게 되면 디자인 음지에 디자인 재능을 기부하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경희대 교수로 처음 부임한 뒤 '아이덴티티 디자인' 강좌를 맡으면서 곧바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2005년 첫해 사회봉사기관 등 3곳에 CI를 기부해 좋은 반응을 얻은 후 이듬해부터 매년 10~20곳에 기부를 해왔다. 올해만 해도 경희 그레이트 서포터즈, 나눔의 둥지,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동물보호학대방지연합, 한민족복지재단 등 14곳에 기부를 했다.

자신의 강좌를 수강하는 50여 명의 4학년 학생들과 함께 김 교수는 매년 3월 기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느라 분주하다. 사회봉사기관 목록을 뽑아본 뒤 활동이 활발하지만 CI가 없는 기관을 선정해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재능기부를 받을지 의사를 타진한다.

조영철 기자

김형석 경희대 교수는 2005년부터 재능기부로 사회봉사단체 등 70여 곳에 기업이미지(CI)를 무상으로 기부했다. 그는 "먼 미래에 해외 오지에도 디자인의 힘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영리 학술기관·사회봉사기관 등 70여 곳에 CI 무상 기부

그는 "국내에 사회봉사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활동이 활발한 기관조차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로고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CI를 제작하려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드는데 비영리기관에 CI를 무료로 기부하면 차별화된 정체성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 대상 기관을 선정하면 학생들과 2학기에 걸쳐 CI를 완성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무상으로 전달한다. 미혼모자활지원단체인 애란원에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하늘을 나는 형상의 CI를 기부해 현재 홈페이지, 서식서류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예산 문제로 1년 동안 혼신을 다해 만든 CI가 사용되지 못할 때는 아쉬운 마음도 크다.

꾸준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어느 정도 명성이 쌓여 이제는 몇몇 기관이 먼저 CI 기부를 요청할 정도다. 학생들도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CI가 없는 사회봉사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재능기부를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된 만큼 앞으로 국내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며 "국내 사회봉사기관들을 상대로 한 기부가 충분히 이뤄지면 먼 미래에는 해외 오지에도 디자인의 힘을 전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G

글 · 김제관(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제주 커피 맛보러 오세요"

국내 첫 커피 농사꾼 노진이 씨

"아직 수확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커피의 경쟁력은 신선함과 고품질이에요. 아열대 기후인 제주는 겨울 석 달만 제외하곤 원산지만큼 재배 적지거든요."

지난 10월 제주시 삼양2동 자신의 커피농장에서 제1회 제주커피축제를 열었던 노진이(42) 씨는 "제주산 커피를 사랑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지만 그만큼 어깨도 무겁다"고 말했다.

커피축제에선 특히 제주커피농장에서 생산한 커피가 10퍼센트가량 첨가된 블랜드 커피를 내놓았는데, 다른 커피들에 비해 유난히 인기가 좋고 반응이 뜨거워 다시 한 번 제주산 커피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노 씨는 "지금은 수확량이 적지만, 앞으로 제주산 커피의 비중을 점점 높일 것"이라며 "제주산 커피의 맛이 뛰어나고 제주도에서도 커피가 생산된다는 것을 알린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현재 5천6백여 제곱미터의 땅에 직접 파종하거나 배양한 아라비카종 커피나무 2만5천 그루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 관상용으로 팔기 위해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곳은 있지만 원두를 생산할 목적을 가진 사람은 노 씨가 처음이다.

커피나무를 제주도 땅에 뿌리내리게 한 노진이 씨는 10년 후 제주를 세계적인 커피 여행 관광지로 만들고픈 꿈을 갖고 있다.

미혼의 '처녀 농사꾼'인 노 씨는 '직접 재배한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욕심에 커피 농사를 시작했다. 국내 최초인 만큼 모든 것이 도전하고 개척하는 과정이었다.

새벽 5시 30분,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서너 시간 동안 물을 줘야 하고, 태풍이 왔을 때는 한밤중에 쓰러진 화분을 세우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커피나무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때에 맞춰 영양제를 주는 등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커피 열매들이 제대로 익지 않는 것이 요즘 그의 최대 고민이다.

"10년 후에는 제주에 커피 기후생태박물관 만들 거예요"

하지만 가을이 깊어가면서 커피나무에서 빨갛게 익어 가는 모습이 체리와 비슷해 '커피 체리'라고도 불리는 커피 열매들을 조금씩 거둬들이고 있다. 이번 수확기에는 제주도민의 10퍼센트가 마실 수 있는 양의 커피를 수확하고 앞으로 1, 2년 안에 대량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주시 외도동에서 삼양동으로 농장을 옮긴 그는 앞으로 농장, 교육 및 체험장, 시음 장소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커피나무가 자라면서 고민도 함께 커졌지만, 작업 자체가 신나는 데다 나이가 들어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며 웃었다.

"제 꿈은 10년 후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에 커피를 주제로 한 기후생태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커피나무를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산지 여행을 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25도 이내 '커피 벨트'에서만 자란다는 커피나무를 제주도 땅에 뿌리내리게 한 여자, 석유에 이어 세계 무역량 2위를 차지하는 커피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낸 노 씨의 눈빛이 안경 너머 빛나고 있었다. G

글·김지선(연합뉴스 제주지사 기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전남 완도 청산도

“느릿느릿 걸어봐 감동이 밀려올 거야”

청산도는 푸르다. 사시사철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푸른 섬이다. 신선들이 노닐 정도로 아름다워서 옛날에는 ‘선산’(仙山) 또는 ‘선원’(仙源)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지금은 섬 전체가 풍광 좋기로 유명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청산도를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은 뜸했다.

그러다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1백만 관객을 돌파한 〈서편제〉를 통해 청산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예스러운 정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거기에다 2007년 12월 전남 신안군 증도, 담양군 창평면, 장흥군 유치·장평면 등과 함께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증되자 청산도를 찾는 외지인들의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요즘 들어 청산도를 찾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슬로길을 걷기 위한 ‘뚜벅이’ 여행자다. 슬로길은 슬로시티 인증 이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항구, 해안도로, 마을길, 고샅길, 논두렁길, 밭둑, 몽돌해변, 솔숲, 비탈길, 바윗길, 억새밭, 해안절벽, 둑길, 상록수림 등의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게 된다.

이 슬로길은 지난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청산여수(靑山麗水)길’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었다.

하지만 막상 청산도에 가보면 청산여수길을 찾기 어렵다. 어떠한 이정표와 안내판에도 청산여수길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고, 모두 슬로길뿐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부르기도 쉬운 슬로길을 청산여수길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탓”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울창한 해송 숲이 인상적인 지리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해넘이.

섬사람들의 독특한 장례 풍속을 보여주는 청산도의 초분.

말탄바위에서 범바위로 이어지는 슬로길을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현재 새로 제작 중인 팸플릿에는 '청산여수 슬로길'로 표기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청산여수 슬로길은 청산도의 관문인 도청항에서 시작된다. 군데군데 '슬로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큼지막하게 세워져 있어서 길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온 '서편제길'

도청항에서 화랑포까지 이어지는 1코스는 도청항을 지나는 항(港)길, 도락리의 오래된 우물에서 이름을 따온 동구정길,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를 지나는 서편제길로 이뤄져 있다. 길이 5.7킬로미터의 1코스에서 하이라이트 구간은 역시 서편제길이다. 돌담길이 길게 이어지는 이 길에서 떠돌이 소리꾼 유봉이가 두 남매와 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광경은 "한국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2006년에는 TV 미니시리즈 <봄의 왈츠>의 촬영지로도 활용됐다. 당시 지중해풍의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봄의 왈츠> 세트장 건물이 돌담길 옆의 언덕에 우두커니 남아 있다. 이 언덕의 구불구불 이어지는 돌담길에서 바라보는 당리마을과 읍리의 전경 그리고 도락포 저편의 바다를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저녁노을이 매우 인상적이다.

서편제길이 끝나는 화랑포에서 2코스인 연애바탕길이 시작된다. 구장리의 앞개해변까지 이어지는 이 벼랑길에서는 탁 트인 바다를 줄곧 옆구리에 끼고 걷는다. 서로 초면인 남녀조차도 이 벼랑길을 함께 걷다 보면 서로 손을 잡아주거나 끌어주다가 어느새 연애 감정이 싹트게 된다고 해서 연애바

사방으로 시야가 상쾌하게 트인 범바위 정상.

탕길로 명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애의 바탕이 될 만큼 위험한 구간은 별로 없다.

벼랑길이 끝나고 아담한 몽돌해변과 앞개해변을 지나면 다시 3코스인 낭길로 들어선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닷가 벼랑 위의 솔숲 사이로 이어지는 길이다. 소나무 사이로 언뜻 들어오는 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파랗다.

낭길의 종점은 권덕리다. 주변 갯바위에 돌돔, 참돔, 감성돔 등 고급 어종의 입질이 잦은 천혜의 낚시터가 즐비해서 그동안 낚시꾼들만 알음알음으로 찾던 갯마을이다. 이제는 낚시꾼들보다도 걷기 여행자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온다.

권덕마을과 범바위 사이의 범길은 몹시 비탈진 산길이다. 길이는 1.8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쉬엄쉬엄 걷다 보면 1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더구나 도중에 거치는 말탄바위와 범바위 정상의 조망이 매우 탁월해서 게으른 여행자의 발걸음은 한동안 떨어지질 않는다.

4코스 범길의 종점에서 시작된 용길도 만만치 않은 험로다. 범바위 동쪽 기슭의 장기미해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매봉산 자락의 비탈진 오르막길을 지나 청계리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청산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청계리 일대에는 청산도 특유의 구들장논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신풍, 부흥 등의 마을과 동부에 위치한 원동, 양지, 중흥, 신흥, 상서 등의 마을에도 청산도 주민들이 맨손으로 피땀 흘려 일군 구들장논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청산도 주민들의 생활력·근면성 상징하는 5코스 '들길'

옛날의 청산도는 인구가 많고 농토는 부족해서 늘 식량이 모자라는 섬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 뼘의 농토라도 더 얻기 위해 방고래를 켜고 구들을 놓듯 계단식 축대를 층층이 쌓고 그 안쪽에 흙을 쏟아부어 구들장논을 만들었다. 청산도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생활력과 근면성을 상징하는 구들장논 사이로 슬로길의 5코스인 들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청산도 마을의 골목길은 대부분 돌담길이다. 돌담마다 세월의 더께가 두껍게 쌓여 있다. 돌마다 다양한 문양의 돌옷이 가득하고, 담쟁이넝쿨과 수세미 덩굴은 돌담 전체를 뒤덮었다. 인공 돌담이 어느새 자연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원형이 잘 보존된 상서마을의 1천26미터에 이르는 돌담은 국가

청산도의 관문인 도청항 길가에 슬로길 푯말이 서 있다.

에서 등록문화재 제279호로 지정했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수호신처럼 서 있는 상서마을은 슬로길 5코스의 종점이자 6코스의 시점이다. 돌담길은 6코스에 접어들어서도 계속되다가 동촌마을을 지난 뒤로 끝난다. 동촌마을에서 무인도인 항도까지는 들국화길이다.

인적이 뚝 끊기는 대신에 자연의 소리가 한층 가깝게 들려온다. 신흥리 모래등해수욕장의 드넓은 모래벌판을 넘나드는 파도소리, 청산도의 동쪽 해안을 가로질러 대양으로 내달리는 바람소리가 연신 끊이질 않는다. 걸음을 멈추고 갯쑥부쟁이, 감국 등의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핀 길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한없는 평화와 여유가 느껴진다.

갈 길이 남았어도, 길이 모두 끝났어도 청산도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청산도에서 빠른 걸음은 반칙이다. 그래서 슬로시티이고 슬로길이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코스 정보

1코스(항길→동구정길→서편제길) 5.7km, 2시간 소요
도청항→도청리 쉼터→갤러리길→도락리(동구정)→솔밭 해변→〈서편제〉, 〈봄의 왈츠〉 촬영지→화랑포

2코스(연애바탕길) 2.4km, 1시간 10분 소요
화랑포→연애바위→당리제 삼거리→앞개→구장리 해변

3코스(낭길) 1.8km, 40분 소요
구장리 해변→바람구멍→따순기미→권덕리 해변→권덕리 공동우물

4코스(범길) 1.8km, 1시간 소요
권덕리 공동우물→낚시터 입구→말탄바위→범바위

5코스(용길→들길) 6.0km, 2시간 30분 소요
범바위→칼바위→장기미→해녀바위→매봉산 등산로 입구→청계리(구들장논)→동부 들녘→하천 둑길→원동리(구들장논)→상서리 노거수

6코스(돌담길→들국화길) 3.3km, 1시간 30분 소요
상서리 노거수→상서리 돌담길→동촌리 돌담길 및 노거수→신흥리 모래등해수욕장→목섬(항도)→목섬 새끝

문의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관광상품 담당** ☎ 061-550-5430
청산면사무소 ☎ 061-550-6501
청산도슬로시티위원회 ☎ 061-554-6969

숙박

청산도에는 호텔이나 콘도가 없다. 도청항에는 등대모텔(061-552-8558), 칠성장(061-552-8507), 경일장(061-554-8572) 등의 모텔이 있다. 민박집이나 펜션으로는 권덕리의 바다정원펜션(061-53-1002), 신흥리의 상산포민박(061-552-4802), 진산해수욕장의 사계절펜션(011-9815-8118), 지리해수욕장의 한바다민박(061-554-5035)과 솔바다펜션(061-552-9323) 등이 권할 만하다.

맛집

도청항에 자리한 청산도식당(061-552-8600)은 생선회와 백반, 전복죽, 갈치조림 등을 맛깔스럽게 내놓는 집이다. 도청항에는 섬마을식당(061-552-8672), 부두식당(061-552-8547), 바다식당(061-552-1502) 등 음식점이 여럿 있다. 주로 전복죽, 생선회, 백반 등을 내놓는데 대체로 음식이 맛깔스럽고 생선회도 싱싱한 편이다.

가는 길

승용차 | 호남고속도로 산월나들목(13번 국도)→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나들목→어등대교→무안광주고속도로 운수나들목→평동산단 삼거리(직진)→평동산단 입구 삼거리(13번 국도)→나주→해남→완도대교→완도항

배편 | 완도항 제1부두에서 청산농협(061-552-9388)의 청산고속 카페리호가 하루 5회 왕복 운항한다. 청산도 도청항까지는 약 50분 소요. 날씨, 계절, 요일에 따라 출항 시간과 횟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섬 내 교통 | 청산나드리 마을버스(061-552-8747)와 청산버스(061-552-8546)가 여객선 운항 시간에 맞춰 운행한다. 버스 시간이 맞지 않거나 급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청산택시(061-552-8519), 청산개인택시(061-552-8747)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인 DNA 비밀’ 인문학으로 해부한다

한국정책방송 〈인문학 콘서트 2〉 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대한민국 인문학자들은 ‘한국인의 DNA’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같은 가슴 아픈 상처 속에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당당히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로 한국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꼽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실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능력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인문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따라서 인문학적으로 바라본 한국인의 정체성은 더 없이 특별하다.

2008년 KTV 한국정책방송은 〈인문학 열전〉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최근까지 1백20회에 걸쳐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간 방송으로만 나왔던 것이 아쉬워 지난해 12월 〈인문학 콘서트〉 1권을 펴냈고 이번에 ‘인문학, 한국인을 탐색하다’라는 부제를 단 〈인문학 콘서트 2〉를 출간했다.

부제대로 이번 책에서는 ‘한국인’을 주제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고유한 창의력, 미래 한국인의 모습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박이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하지현 건국대 신경정신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 16명의 원로·중견 학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으로 접근해 한국인의 힘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우월·열등감 없이 바라보는 관점이 선진 국민의 자세”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 ‘한국인, 어디로 가나’에서는 한국인 고유의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한다. 바로 전문가들이 그린 미래 한국 청사진이다.

이에 대해 이어령 교수는 ‘한국인의 독창성’에 답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사는 것(Living)’이 아닌 ‘삶(Life)’이 주가 됐을 때 더욱 발휘될 수 있다는 것. 또 인간 사이의 소통과 공감이 존재할 때 더욱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2부 ‘한국인, 어디에서 왔나’에서는 한국인의 조상, 한국인의 명절, 한국인의 귀신 이야기 등 한국인의 뿌리를 통해 정체성을 더듬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담론들이 담겨 있다.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점점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폐쇄적인 단일민족적 시각보다는 나와 다른 문화집단을 이해하고 ‘문화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3부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한국인, 누구인가’를 주제로 삼았다. 한국인의 문화적 재능에서부터 음악과 춤, 한옥 등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을 살피면서 일상 속에서 지나쳤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는 “우리 문화만 뛰어나다는 생각은 망상”이라며 “우월감과 열등감 없이 문화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야말로 선진 국민의 자세이자 세계 문화 주역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

인문학이 위기인 시대에 인문학의 고유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까지 찾아주는 것이 이 책의 역할이다. 올해가 가기 전 ‘인문학, 한국을 탐색하다’라는 부제의 〈인문학 콘서트 3〉도 출간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인문학 콘서트 2〉
이어령 · 김정운 외 지음/
이숲 펴냄 / 2만5천원

따라 하지 마세요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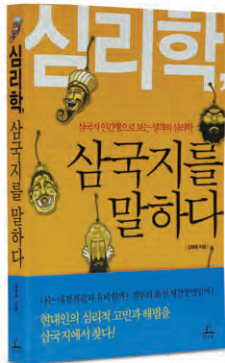
반칙은 반칙일 뿐입니다.

왜 그래? 나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잔디가 아파해요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습관 속에 행복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三國志로 바라본 '心國志'

일러스트 · 이우정

〈심리학, 삼국지를 말하다〉
김태형 지음 / 추수밭 펴냄 · 1만3천원

소설 〈삼국지〉는 고대 동양의 지혜가 담긴 대표적인 고전이다. 오랜 세월 사랑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토록 〈삼국지〉가 장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책사들의 신출귀몰한 계략 싸움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포함하는 장대한 스케일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대중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에는 현실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은 당장이라도 살아나와 움직일 것처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등장인물에 대한 세밀한 심리묘사가 〈삼국지〉가 현재까지 큰 인기를 누려오는 이유로 꼽힌다. 인간 심리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삼국지〉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면밀히 파헤친 책이 나왔다. 심리학자 겸 심리학 관련 저술가로 활동하는 저자 김태형 씨가 펴낸 〈심리학, 삼국지를 말하다〉다. 그는 이 책에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적 비밀을 16가지 심리 유형으로 분석한다. 이들의 심리 유형을 파악하면 평소 잘 몰랐던 주변 사람들의 성격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주요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다시금 조명한다. 그중에서도 〈삼국지〉의 중심축이라 불리는 유비, 제갈공명, 조조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심리 분석을 하고 있어 흥미롭다.

유비는 너그럽고 온화하며 겸손한 군주라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책에서는 애정결핍증 환자로 분석됐다. 유비의 과도한 겸손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심리의 발로이며 유비만의 독특한 대인관계 책략이라는 것이다.

최고의 전략가인 제갈공명도 실은 질투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제갈공명에게 내부 경쟁자는 관우였다. 자만심 가득 찬 제갈공명에게 관우는 거북한 존재였다. 결국 관우가 죽음으로 내몰리도록 조장하고 방치해 제갈공명은 독주 체제를 굳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난세의 간웅으로 인식됐던 조조에 대한 평가는 의외로 좋은 편이다. 다방면에 뛰어난 정치 지도자였고 일관되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또 조조는 도덕적인 인물을 끔찍이도 좋아한 반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은 극도로 싫어했다. 이처럼 선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심리적 약점을 극복해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승리하는 리더들의 심리적 공통점을 알려주고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사회적 본성과 보편적 심리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틀을 제공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

글 · 이상미(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새로운 희망

인생에도 다음 칸이 있습니다. 지금 좌절하지 않는다면
다음 칸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왕실문화’ 베르사이유의 초대

특별전 ‘베르사이유의 영광 – 루이 14세부터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프랑스의 국보인 루이 14·15·16세 초상화를 비롯한 프랑스 왕실의 회화와 유물, 조각 등 베르사이유 궁전의 화려한 전시물들이 우리나라 관람객들 앞에 선보인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내년 3월 6일까지 개최되는 프랑스 국립 베르사이유 특별전 ‘베르사이유의 영광–루이 14세부터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이하 베르사이유 특별전)에서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전성기인 루이 14세부터 프랑스혁명 직전의 비운의 황제, 루이 16세에 이르는 3대 2백여 년의 프랑스 왕실문화를 보여주는 83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베르사이유궁은 루이 14세가 왕실 본궁으로 사용하면서 17, 18세기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당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화려함을 꽃피웠다. 당시의 화려함을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루이 14세의 방, 루이 15세의 방,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의 방으로 나눠 해당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칠했다. ‘거울의 방’을 약식으로 재현해낸 복도도 인상적이다.

전시를 주관한 지엔씨미디어의 홍성일 대표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공식 초상화를 비롯해 왕비가 직접 사용하던 유물도 대거 전시된다”며 “베르사이유궁과 가장 비슷한 전시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르사이유 궁전에는 루이 14세 때부터 프랑스 혁명기 전까지 궁에 머물렀던 프랑스 왕가가 직접 사용했던 진품 유물 및 작품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다. 베르사이유 궁전의 유물들이 국외에서 대규모로 전시된 것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G

글 · 이윤진 기자

일시 2011년 3월 6일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일반 1만3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 만65세 이상 및 6세 이하(48개월 이상) 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25-1077~8 www.sac.or.kr

● 이병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타리스트 이병우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캐럴부터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며질 이번 무대는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연출에 손색이 없다.

일시 12월 23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3층석 2만원, 커플석 8만원(2장),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1300 www.sac.or.kr

●● 안숙선의 완창 판소리 〈정광수제 수궁가〉

우리 시대 최고의 명창 안숙선 선생이 〈수궁가〉로 ‘2010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다. 국립극장에서 준비한 떡국과 불꽃놀이 등 새해맞이 이벤트도 놓칠 수 없는 재미다.

일시 12월 31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

●●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스톤의 무게?
컬링은 19.96kg의 스톤을 하우스라는 원에 정확히 밀어 넣는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컬링의 스톤은 19.96kg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는 세상의 시선과
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의 무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휠체어컬링 은메달, 이들이 움직인 스톤에
세상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더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경기가 아니라 스포츠의 진정성과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인간승리의 드라마입니다.
12월 12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저우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300명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